

## 사마란치 IOC위원장 태권도·방문



경기시범을 참관하는 사마란치 위원장에  
김희장이 경기(들)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위원장(스페인·62)이 국기원을 방문했다. 「기요가와 마사지」부위원장과 딸 「마리아 테레사」양과 함께 온 사마란치 위원장은 9일 오후 5시경에 김택수 IOC위원, 김용식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조상호체육회장 등의 안내로 국기원에 도착, 간단한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은 대한태권도협회측이 주관하여 수많은 서울시내 사범과 태권도 수련생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간략하지만 성대하게 치루어 졌다. 김운용 세계연맹총재는 직접 유창한 영어와 스페인어로 환영의 인사를 했다.

간략한 환영식전이 끝나고 이어서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도시범이 있었다. 국기원 경기장에는 대형 오토리가 사방에 걸리고 열광여상 밴드부의 멋진 연주가 울리는 가운데 고사리 손발의 묘기가 「로얄 박스」의 사마란치위

원장과 그 일행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총재는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의 일체감에서 비롯되는 어린이들의 시범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여 사마란치위원장의 감탄은 극에 달했다. 이어



어린이들의 시범이 끝나고 기립박수로 격려했다.

세계연맹인 이번 「브리핑」을 IOC위원장의 방한을 대비해 했다.



서 한국체대 선수들의 경기시범을 관람했다. 경기규정의 설명을 들으며 태권도경기의 합리적 운영을 논여겨 본 사마란치위원장은 시종 깊은 감명을 받는 듯했다. 한편, 김총재는 사마란치위원장의 방문을 기념하는 기념패를 증정하고 사마란치위원장은 김총재에게 오픈마크가 들어 있는 메달트에 주석에서 친필서명을 써넣고 증정하여 이에 답했다.

시범행사가 끝나고 김총재는 회의실로 사마란치위원장 일행을 안내하고 미국체육회장인 「조시아 헨슨」, 케냐 국무장관 「카리우키」, 유럽태

권도연맹회장 「헤인즈 막스」씨등 세계태권도연맹의 실행위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태권도의 세계적 현황을 직접 「브리핑」했다.

이자리에서 사마란치위원장은 「태권도도 올림픽경기종목으로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태권도의 올림픽경기종목 채택에는 전 태권도인들의 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의 실행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월드·컵」대회를 창설, 경기를 치루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중주국 태권도를 찾은 귀빈, 사마란

치위원장은 80년 7월 「모스크바」올림픽기간 중 열린 제84차 IOC총회에서 제9대 IOC위원장에 피선된바 있다. 그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출생,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사격, 요트, 복싱, 축구, 승마, 하키 등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그는 66년에 IOC위원으로 피선되었으며 동 위원회의 집행위원과 부위원장을 거쳤다. 또 주소 및 주몽고 대사를 역임한 전문 외교관이기도 하다.

부인 「마리아 살리사치」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고 특히 아들인 「후안 안토니오」는 태권도유단자(초단)이라고.



김희장은 직접 태권도의 세계적 현황을 설명, 사마란치위원장은 이를 경청했다.



## 제17회 대통령기 쟁탈

##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김용휘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총 76개팀 참가, 역대 최대규모!

초하의 광주 태권도 열기로 가득해



개회식 광경, 광주 실내체육관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제17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대구 직할시에서 열린 이후 이 대회를 자기 요장으로 유치하

려는 치열한 자축전을 벌인 끝에 개최지가 된 호남의 제1도시 광주는 이번 대회의 유치권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왔었다. 이번 대회의 참가 팀은 고등부 46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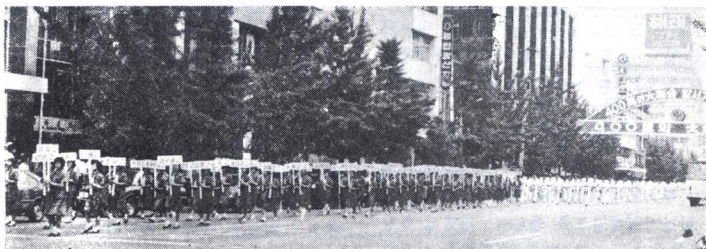
## ◇ 경기보고 ◇

부 23개 일반부 7개 팀으로 무려 76개 팀이나 되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참가팀이 많은 것에 못지 않게 전라남도 태권도협회의 김두원 회장과 박창웅전무를 비롯한 관계 임원들은 일사불란한 대회준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태권도인들의 감탄을 사기도 했다. 대회 첫날 대회장소인 광주실내체육관에는 4천여 관중이 입추의 여지가 없는 대성황을 이루어 중앙에서 내려온 임원진을 기쁘게 했다.

한편 개회식을 앞두고 출전 선수단 전원과 멀리 서울에서 초청된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질서정연한 가운데 결스카웃 대원들의 「피켈」과 광주 동일실업 고등학교 밴드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벌려 주말의 변화가를 수놓았다. 이어서 오후 2시 15분 부터 개회식에



김창식 지사가 꽃다발을 받고 있다.



광주시내 시가 행진을 하는 태권도 선수들.

들어 갔다.

대회장인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지금까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출전 선수단 전원이 긍지를 재확인하는 명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모든 태권도인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정적의식을 추방하고 자율적인 의식개혁운동의 선도자로서 우리 사회의 기풍을 쇄신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편 개최지의 태권도인 대표로서 김두원 전남협회장은 환영사에서 「광주에서 이 대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태권도가 더욱 발전되고 태권도인의 단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 바란다」며 「30만 전남 태권도인은 뜨거운 환영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운용 회장의 대회사





김두원 전남협회장의 환영사

이 자리에는 김창식 전라남도 지사를 비롯하여 기관장 및 보도진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번 대회가 이 고장의 큰 관심거리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창식 지사는 격려사를 통하여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태권도는 어느 투기보다도 과학적이며 조직적인 경기」라고 하면서 「태권도를 통하여 단련된 역량을 사회생활에 확산시켜 국민 대화합을 선도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민주복지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운용 회장은 대회개최에 많은 도움을 준 김창식지사, 윤기노 전남도경국장, 김양대 광주시장 등 관련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김지사는 도백으로서 이 대회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에 따라 김희장과 엄운규 부회장을 황춘성 전무이사에게 각기 감사패를 증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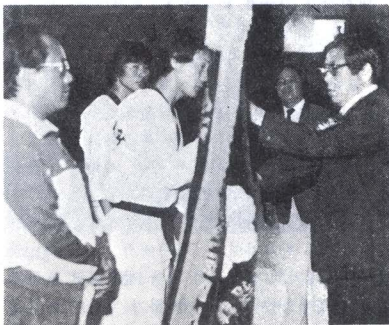
대회 첫날인 이날의 경기는 고등부경기가 벌어졌는데 출전 팀의 실력이 평준화되어 예측을 할 수 없는 혼전이 벌어졌다. 이날은 신중한 경기운영 때문인지 대부분 근소한 판정으로 끝나는 법전이 많았다. 한편, 이날의 경기진행은 전남협회의 입원 및 소속 사범들이 총출동하여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한 건의 불협화음도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경기 이틀째인 6월 13일에는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등부 경기가 속행되었다. 이날 경기는 K.O승이 두 게임이나 나왔다. 첫 K.O승을 거둔 선수는 라이트급의 청주기공의 박종현이었다. 박선수는 김광우(학다리고)선수를 맞아서 1회 30초 만에 오른 주먹으로 명치를 정확하게 공격하여 다운을 뺏고 통쾌한 K.O승을 거두었다. 또 라이트 미들급 경기에서도 배영교의 김운태 선수는 임현식 선수(항도실고)를 맞아 1회 1분 19초 만에 뒤후려차기로 얼굴을 차서 K.O승을 거두었다. 한편 격렬한 경기를 벌인 262번째 게임에서 윤운택선수가 주먹으로 상대인 조동인의 얼굴을 쳐 상처를 났으므로 반칙패를 당했다.

대회 3일째인 6월 14일에는 대학부 경기가 벌어졌는데 고등부 못지 않는 격렬한 시합이 많았다. 라이트 헤비급에서 대구대 이동우선수는 인하공전의 안철규선수를 맞아 1회 1분 42초 만에 안선수의 명치에 정확한 주먹치르기를 명중시켜 대학부 첫 K.O승을 거두었다.

드디어 대회 마지막 날인 6월 15일은 혼전에 혼전이 거듭되어 어느 팀이 종합우승을 할지 예측을 불허하게 했다.

고등부에서는 개최지의 명예를 높이려는 전남체고가 사력을 다하여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2위에는 동성고가 3위에는 성남의 풍생고가 입상했으며 감투상은 서울체고가 장려상은 화순고에게 돌아갔다. 대학부에서는 예상이 완전히



대학부 3연패를 달성한 한국체육대학이 우승기를 받고 있다.

## ◇ 경기보고 ◇

빛나가는 이번이 속출하여 10개의 금메달을 2개씩 획득한 한국체대, 유도대, 청주대, 성균관대 등이 각축전을 벌였으나 대회 3연패에의 집념에 불타는 한국체대가 은메달 1개 차이로 유도대를 누르고 대망의 3연패를 달성했다. 한편 뜻 밖의 「다크 호스」로 부상한 유도대는 그간의 꾸준한 맹훈련의 저력이 이제야 진가를 발휘한다고 팀의 코치들은 회색이 만면에 감돌았다. 또 3위를 차지한 청주대학은 선수들이 한 고장에서 계속 수련을 한 장점을 살려 우수한 기량을 과시함으로써 스카웃 선수들이 많은 서울팀 코치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대학부의 감투상은 성균관대가 장려상은 멀리 강릉에서 출전한 관동대가 받았다.

일반부 경기는 쌍벽인 육군과 해군의 전통적인 격전으로 판가름이 났는데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노리는 육군대표팀과 1년간 재계물의 기회를 기다리던 해군 대표팀과의 치열한 응원전으로 경기장은 떠나갈 듯 했다. 결국 국가대표 선수가 주축을 이룬 해군팀이 막강한 육군팀을 제치고 지난해의 설욕을 하면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전남대표팀은 금 1 은 1 동 3개를 획득하여 태풍의 눈이 되었다. 이날 있는 시상식에서 김두원 전남 협회장은 중앙협회의 사무국장(김용휘), 경기분과위원장(김봉기), 심판분과위원장(이영근)등의 관계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우승팀의 감독인 전남체고의 박현중, 한국체대의 송석영, 해군의 김석호, 씨사람이 지도상을 받았다. 한편 최우수선수상은 전남체고의 왕광연, 한국체대의 이재봉, 해군의 박오성군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17회 대회에는 지금까지의 어느 대회보다도 많은 팀과 선수들이 참가했으며서도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와 대회운영으로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끝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또 각 지방의 태권도인을 초청한 셀인 전남협회의 열성을 다한 봉사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주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아무췌록 이번 대회 준비에 물심 양면으로 애쓰신 김두원 회장이하 전남협회 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런 분들의 노고야말로 태권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한다.

## 부별 단체입상 명단

### <고등부>



고등부 우승팀, 전남체고 선수일동



◇ 경기보고 ◇

| 등 | 위 | 단   | 체     | 명 | 금 메달 | 은 메달 | 동 메달 | 계    |
|---|---|-----|-------|---|------|------|------|------|
| 1 | 위 | 전 남 | 체 육   | 고 | 2    | 2    | 2    | 6    |
| 2 | 위 | 동 성 | 고 등 학 | 고 | 2    |      | 3    | 5    |
| 3 | 위 | 동 생 | 고 등 학 | 고 | 2    |      | 2    | 4    |
| 감 | 투 | 상   | 울 체 육 | 고 | 1    | 2    |      | 3    |
| 장 | 려 | 상   | 환 순 고 | 고 | 1    |      | 2    | 3    |
| 지 | 도 | 상   | 박     | 현 | 중    | 전    | 남    | 체 .고 |
| 최 | 우 | 수   | 선     | 수 | 상    | 왕    | 광    | 연    |



대학부 3연패를 이룩한 한국체대 선수들

<대 학 부>

| 등 | 위 | 단   | 체       | 명 | 금 | 은 | 동 | 계     |
|---|---|-----|---------|---|---|---|---|-------|
| 1 | 위 | 한 국 | 체 육     | 대 | 2 | 2 | 2 | 6     |
| 2 | 위 | 유 주 | 도 대 학   | 대 | 2 | 1 | 2 | 5     |
| 3 | 위 | 청 주 | 대 학     | 교 | 2 | 1 | 2 | 5     |
| 감 | 투 | 상   | 성 관 대 학 | 교 | 2 |   | 1 | 3     |
| 장 | 려 | 상   | 관 동 대 학 | 교 | 1 | 1 | 2 | 4     |
| 지 | 도 | 상   | 송       | 석 | 영 | 한 | 국 | 체 육 대 |
| 최 | 우 | 수   | 선       | 수 | 상 | 이 | 재 | 봉     |

일반부 우승팀, 해군의 선수 및 감독 고치

|   |   |   |   |   |   |   |   |    |
|---|---|---|---|---|---|---|---|----|
| 등 | 위 | 단 | 체 | 명 | 금 | 은 | 동 | 계  |
| 1 | 위 | 해 | 군 | 대 | 포 | 3 | 2 | 10 |
| 2 | 위 | 육 | 군 | 대 | 포 | 3 | 1 | 7  |
| 3 | 위 | 전 | 남 | 대 | 포 | 2 | 4 | 7  |
| 감 | 부 | 상 |   |   | 회 | 1 | 3 | 5  |
| 장 | 려 | 상 | 말 | 응 | 관 | 1 | 5 | 6  |
|   |   |   | 마 | 체 | 육 |   |   |    |
| 지 | 도 | 상 | 김 | 석 | 호 | 해 | 군 | 감  |
|   |   |   |   |   |   |   |   | 독  |
| 최 | 우 | 수 | 선 | 수 | 상 | 박 | 오 | 성  |
|   |   |   |   |   |   | 해 | 군 | 대  |
|   |   |   |   |   |   |   |   | 표  |

〈고 등 부〉

| 동 위 |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 금 | 왕 광 연 | 전남대학교 | 지 용 석 | 청주기공 | 최 천   | 동성고  | 김 화 섭 | 한성고  |
| 클   | 금 | 전 용 환 | 전남대문  | 김 종 동 | 송도상고 | 최 준 태 | 동성고  | 이 이 재 | 광성고  |
| 랜   | 금 | 이 해 진 | 성동상전  | 권 기 문 | 서울체고 | 정 규 명 | 풍생고  | 이 재 규 | 부산체고 |
| 제   | 금 | 정 호 영 | 전남체고  | 김 상 태 | 서울체고 | 김 필 희 | 신흥고  | 홍 용 섭 | 대동문산 |
| 라   | 금 | 강 명 삼 | 동성고   | 김 성 원 | 전남체고 | 윤 성 섭 | 풍생고  | 황 민 수 | 한성고  |
| 웰   | 금 | 타 일 관 | 서울체고  | 이 준 명 | 현대공고 | 이 승 주 | 대전체고 | 나 민 수 | 성동상전 |
| L미  | 금 | 김 윤 태 | 배영고   | 조 동 인 | 전남체고 | 이 기 훈 | 대강고  | 박 준 용 | 동성고  |
| 미   | 금 | 김 용 범 | 동성고   | 신 전 성 | 부산체고 | 서 민 영 | 전남체고 | 김 용 갑 | 송도상고 |
| W   | 금 | 홍 재 관 | 풍생고   | 김 파 열 | 부산체고 | 김 현 수 | 전남체고 | 최 영 희 | 에안고  |
| 해   | 금 | 최 남 규 | 중성고   | 이 경 식 | 대전체고 | 안 병 덕 | 성동상전 | 정 치 호 | 세종고  |

◇ 경기보고 ◇

<대 학 부>

| 체급 | 등 위<br>성명, 소속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 급             | 이 창 석 | 청주대  | 정 재 군 | 관동대  | 김 윤 환 | 한국체대 | 김 선 백 | 동아대  |
| 클  | 급             | 한 규 상 | 유도대  | 김 영 식 | 동아대  | 이 광   | 조선대  | 유 명 준 | 인천체  |
| 배  | 급             | 이 종 열 | 경상대  | 박 기 성 | 한국체대 | 김 학 만 | 청주대  | 이 승 형 | 동아대  |
| 페  | 급             | 이 재 봉 | 한국체대 | 임 관 인 | 청주대  | 김 윤 표 | 유도대  | 김 재 호 | 동아대  |
| 라  | 급             | 서 중 찬 | 유도대  | 이 차 열 | 조선대  | 곽 동 수 | 경희대  | 한 재 구 | 청주대  |
| 웰  | 급             | 윤 오 남 | 조선대  | 박 천 재 | 한국체대 | 유 중 철 | 성 대  | 장 익 수 | 동아대  |
| L  | 급             | 이 완 회 | 성 대  | 민 관 식 | 유도대  | 조 형 식 | 계명대  | 정 국 현 | 한국체대 |
| 미  | 급             | 이 동 준 | 청주대  | 김 주 명 | 인천체대 | 김 대 일 | 경희대  | 박 중 두 | 유도대  |
| W  | 급             | 문 중 국 | 한국체대 | 임 중 남 | 동아대  | 김 재 명 | 인천체대 | 김 성 삼 | 조선대  |
| 해  | 급             | 박 중 만 | 성 대  | 강 용 구 | 명지대  | 최 중 남 | 대구대  | 박 한 일 | 동아대  |

<일 반 부>

| 체급 | 등 위<br>성명, 소속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 급             | 이 진 우 | 해군대표 | 정 승 용 | 전남대표 | 윤 일 섭 | 육군대표 | —     | —    |
| 클  | 급             | 강 종 길 | 육군대표 | 박 성 현 | 청우회  | 오 창 근 | 해군대표 | 이 기 화 | 신촌체  |
| 배  | 급             | 장 천 인 | 전남대표 | 이 길 홍 | 해군대표 | 김 영 남 | 팔마체  | 장 경 만 | 경원체  |
| 페  | 급             | 박 종 환 | 육군대표 | 김 중 기 | 해군대표 | 이 강 현 | 경원체  | 김 성 수 | 관 마체 |
| 라  | 급             | 박 오 성 | 해군대표 | 정 기 수 | 육군대표 | 이 인 천 | 전남대표 | 김 창 규 | 청우회  |
| 웰  | 급             | 박 종 일 | 육군대표 | 김 상 철 | 전남대표 | 이 기 욱 | 팔마체  | 이 태 회 | 해군대표 |
| L  | 급             | 차 상 혁 | 해군대표 | 현 중   | 팔마체  | 김 양 기 | 전남대표 | 허 전 구 | 청우회  |
| 미  | 급             | 신 계 근 | 해군대표 | 노 욱 상 | 육군대표 | 서 현 철 | 팔마체  | 박 영 철 | 청우회  |
| W  | 급             | 노 명 식 | 청우회  | 마 상 현 | 해군대표 | 장 길 성 | "    | 과 원 규 | 전남대표 |
| 해  | 급             | 장 승 화 | 해군대표 | 김 명 수 | 육군대표 | 김 영 주 | 전남대표 | —     | —    |

왜 이렇게도 악평이 그치지 않는가. 사람들은 남의 조그만 공  
적이라도 보게 되면 자기의 품위가 떨어지거나 하는 듯이 생각  
한다.

—괴 테—



## 1982년도 한국대표 선발대회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위원장 김 봉 기



82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5월 13, 14 일에 걸쳐 국기원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1차 선발전의 1, 2위 입상자와 지난해 「월드·게임」의 입상자,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의 입상자 및 81년도 최우수선발전의 1위자 등

각 체급별 5명이 리그전을 치루어 1위와 2위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1위 선수를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제 5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파견하고, 2위 입상선수는 내년 1월 초에 스페인에서 창설되는 「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시킬 예정이다.

대회 첫날, 명실공히 국가대표급 기량을 지닌 선수들의 경기답게 신중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도는 격전이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출전선수

들은 서로 상대의 특기와 시합운영방식을 잘 알고 있어서 코치들과 경기전략을 짜느라 고심했다.

첫날 경기는 체급별로 2번씩 싸웠다. 참가선수들은 서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

첫날 경기에서는 주위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 세계선수권 3연패의 챔피언 김종기선수가 밴텀급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으며, 페더급에서는 동성고의 장명삼선수가 선배 대학생선수들과 맞서서 기민한 공격으로 유효타를 날려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핀, 플라이, 라이트 미들급 등에서는 제 5회 세계선수권의 패자인 전용환, 정국현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여 이번이 속출했다.

선발전 마지막 날, 전승가도를 달려 1위에 입상한 페더급의 장명삼, 밴텀급의 김종기, 라이트급의 한재구, 웰터급의 박동수, 라이트 미들급의 오일남, 미들급의 이동준, 헤비급의 장승화등이 먼저 한국대표선수에 선발되었다.

나머지 체급은 동물을 재대전이 벌어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듯했다. 핀급 경기의 최천, 이창석, 서동현은 각기 3승 1패를 「마크」했는데 피를 달리는 듯한 두번 째의 재대전에서 결국 지난 4월에 있던 1차 선발전의 2위자인 동성고의 최천선수가 청주대의 이창석과 경성대의 서동현을 누르고 영예의 1위에 올랐다. 또 이창석은 2위로 선발되었다.

또한 플라이급에서도 2승 2패의 동물을 이룬 양기모, 고정호, 전용환등이 재대결을 벌려 고정호가 2승을 올려 2위로 선발되었다. 그리고 라이트급과 라이트 미들급에서도 동물 재대전이



선수대표 선서문 전달

벌어졌는데 라이트급에서는 김영국선수가 라이트 미들급에서는 이완희선수가 2위로 각각 선발되었다.

한편 체급별 등위와 대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급별·개인별 등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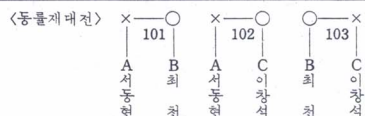
| 체급     | 순위 | 성명  | 소속        | 성년월일       |
|--------|----|-----|-----------|------------|
| 권      | 1  | 崔 天 | 동성고등학교    | 65. 7. 5   |
|        | 2  | 李昌錫 | 청주대학교     | 63. 8. 26  |
|        | 3  | 徐東鉉 | 경상대학교     | 62. 1. 30  |
|        | 4  | 金允煥 | 한국체육대학교   | 62. 12. 26 |
|        | 5  | 李鎮雨 | 해 군       | 61. 11. 28 |
| 플라이급   | 1  | 權基文 | 서울체 육고등학교 | 64. 4. 10  |
|        | 2  | 高顯浩 | 성동상업전문    | 64. 5. 26  |
|        | 3  | 梁基模 | 한국체육대학    | 61. 8. 22  |
|        | 4  | 全雄煥 | 동대문상고     | 64. 4. 25  |
|        | 5  | 韓圭相 | 유도대학교     | 60. 5. 17  |
| 반      | 1  | 金鍾基 | 해 군       | 58. 6. 26  |
|        | 2  | 孫濟烈 | 한국체육대학    | 64. 5. 6   |
|        | 3  | 鄭範秀 | 경희대학교     | 62. 10. 10 |
|        | 4  | 朴鎬祥 | 동성고등학교    | 65. 6. 25  |
|        | 5  | 盧炳旭 | 한국체육대학    | 64. 10. 23 |
| 배      | 1  | 張明三 | 동성고등학교    | 63. 5. 16  |
|        | 2  | 姜鍾吉 | 육 군       | 58. 3. 16  |
|        | 3  | 林官仁 | 청주대학      | 62. 1. 14  |
|        | 4  | 李載鳳 | 한국체육대학    | 61. 6. 9   |
|        | 5  | 李尊吉 | 경희대학교     | 61. 2. 28  |
| 라이트급   | 1  | 韓在求 | 청주대학교     | 62. 12. 20 |
|        | 2  | 金英國 | 대구대학교     | 60. 8. 20  |
|        | 3  | 李濤明 | 울산현대공업학교  | 64. 3. 19  |
|        | 4  | 全廷祐 | 경희대학교     | 64. 12. 26 |
|        | 5  | 李次烈 | 조선대학교     | 64. 2. 20  |
| 웰터급    | 1  | 郭東秀 | 경희대학교     | 62. 12. 20 |
|        | 2  | 朴天在 | 한국체육대학    | 60. 1. 9   |
|        | 3  | 柳鍾哲 | 성균관대학교    | 63. 2. 17  |
|        | 4  | 張益壽 | 동아대학교     | 63. 4. 6   |
|        | 5  | 尹五男 | 조선대학교     | 60. 11. 21 |
| 라이트미들급 | 1  | 吳日男 | 대구대학교     | 60. 1. 15  |
|        | 2  | 李完熙 | 성균관대학     | 63. 8. 4   |
|        | 3  | 朴鍾一 | 육 군       | 59. 7. 18  |
|        | 4  | 車相赫 | 해 군       | 58. 5. 1   |
|        | 5  | 丁局鉉 | 한국체육대학    | 62. 3. 15  |
| 미들급    | 1  | 李東濬 | 청주대학교     | 61. 3. 5   |
|        | 2  | 辛在根 | 해 군       | 60. 10. 23 |
|        | 3  | 張實煥 | 한국체육대학    | 62. 8. 14  |

| 체급     | 순위 | 성명  | 소속     | 성년월일       |
|--------|----|-----|--------|------------|
| 라이트헤비급 | 4  | 李中均 | 동아대학교  | 60. 6. 20  |
|        | 5  | 金相天 | 육 군    | 59. 5. 27  |
|        | 1  | 文鍾國 | 한국체육대학 | 63. 2. 7   |
|        | 2  | 鄭 讚 | 동아대학교  | 60. 3. 7   |
|        | 3  | 林在億 | 청주대학교  | 63. 4. 10  |
| 헤비급    | 4  | 金孟坤 | 한국체육대학 | 61. 12. 11 |
|        | 5  | 河龍成 | 한국체육대학 | 60. 3. 28  |
|        | 1  | 張勝和 | 해 군    | 59. 7. 8   |
|        | 2  | 朴鍾萬 | 성균관대   | 52. 3. 9   |
|        | 3  | 姜承佑 | 경희대학교  | 62. 6. 14  |
| 중급     | 4  | 金丙洙 | 경희대학교  | 63. 7. 14  |
|        | 5  | 李敬植 | 남대전고   | 64. 12. 25 |

82 국가대표 최종 선발 리그전 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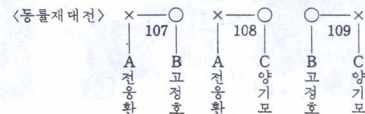
핀 급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김 윤 환 |   | ○ | × | × | × | 1 | 3 | 4  |
| B 이 진 우 | × |   | × | × | × | ○ | 4 | 5  |
| C 최 천   | ○ | ○ |   | × | ○ | 3 | 1 | 1  |
| D 이 창 석 | ○ | ○ | ○ |   | × | 3 | 1 | 2  |
| E 서 동 현 | ○ | ○ | × | ○ |   | 3 | 1 | 3  |



플라이급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권 기 문 |   | × | ○ | ○ | ○ | 3 | 1 | 1  |
| B 양 기 모 | ○ |   | × | × | ○ | 2 | 2 | 3  |
| C 고 정 호 | × | ○ |   | ○ | × | 2 | 2 | 2  |
| D 한 규 상 | × | ○ | × |   | × | 1 | 3 | 5  |
| E 전 용 환 | × | × | ○ | ○ |   | 2 | 2 | 4  |



### 밴텀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 정범수 |    |   | × | ○ | ○ | × | 2 | 2 | 3  |
| B  | 김종기 |    | ○ |   | ○ | ○ | ○ | 4 | 0 | 1  |
| C  | 노병욱 |    | × | × |   | × | × | 0 | 4 | 5  |
| D  | 박호상 |    | × | × | ○ |   | × | 1 | 3 | 4  |
| E  | 손재열 |    | ○ | × | ○ | ○ |   | 3 | 1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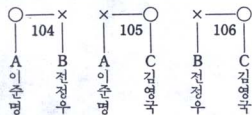
### <페터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 장명삼 |    |   | ○ | ○ | ○ | ○ | 4 | 0 | 1  |
| B  | 이재봉 |    | × |   | ○ | × | × | 1 | 3 | 4  |
| C  | 이준걸 |    | × | × |   | × | × | 0 | 4 | 5  |
| D  | 임판인 |    | × | ○ | ○ |   | × | 2 | 2 | 3  |
| E  | 강종길 |    | × | ○ | ○ | ○ |   | 3 | 1 | 2  |

### <라이트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 이준명 |    |   | ○ | ○ | × | × | 2 | 2 | 3  |
| B  | 김영국 |    | × |   | ○ | ○ | × | 2 | 2 | 2  |
| C  | 이차열 |    | × | × |   | × | × | 0 | 4 | 5  |
| D  | 전정우 |    | ○ | × | ○ |   | × | 2 | 2 | 4  |
| E  | 한재구 |    | ○ | ○ | ○ | ○ |   | 4 | 0 | 1  |

### <동물재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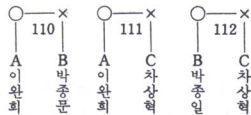
### <웰터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 유종철 |    |   | × | ○ | × | ○ | 2 | 2 | 3  |
| B  | 박천재 |    | ○ |   | ○ | × | ○ | 3 | 1 | 2  |
| C  | 윤오남 |    | × | × |   | × | × | 0 | 4 | 5  |
| D  | 곽동수 |    | ○ | ○ | ○ |   | ○ | 4 | 0 | 1  |
| E  | 장익수 |    | × | × | ○ | × |   | 1 | 3 | 4  |

### <라이트 미들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 박종일 |    |   | × | × | ○ | ○ | 2 | 2 | 3  |
| B  | 이완희 |    | ○ |   | × | × | ○ | 2 | 2 | 2  |
| C  | 오일남 |    | ○ | ○ |   | ○ | ○ | 4 | 0 | 1  |
| D  | 차상혁 |    | × | ○ | × |   | ○ | 2 | 2 | 4  |
| E  | 정국현 |    | × | × | × | × |   | 0 | 4 | 5  |

### <동물재대전>



### <미들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 장길환 |    |   | × | ○ | ○ | × | 2 | 2 | 3  |
| B  | 이동준 |    | ○ |   | ○ | ○ | ○ | 4 | 0 | 1  |
| C  | 이중균 |    | × | × |   | ○ | × | 1 | 3 | 4  |
| D  | 김상진 |    | × | × | × |   | ○ | 1 | 3 | 5  |
| E  | 신재곤 |    | ○ | × | ○ | × |   | 2 | 2 | 2  |

### 라이트 헤비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 하용성 |    |   | × | × | × | ○ | 1 | 3 | 5  |
| B  | 김명곤 |    | ○ |   | ○ | × | × | 2 | 2 | 4  |
| C  | 문종국 |    | ○ | × |   | ○ | ○ | 3 | 1 | 1  |
| D  | 임제익 |    | ○ | ○ | × |   | × | 2 | 2 | 3  |
| E  | 정찬  |    | × | ○ | × | ○ |   | 2 | 2 | 2  |

### 헤비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순위 |
|----|-----|----|---|---|---|---|---|---|---|----|
| A  | 강승우 |    |   | ○ | ○ | × | × | 2 | 2 | 3  |
| B  | 김병수 |    | × |   | ○ | × | × | 1 | 3 | 4  |
| C  | 이정식 |    | × | × |   | × | × | 0 | 4 | 5  |
| D  | 박종만 |    | ○ | ○ | ○ |   | × | 3 | 1 | 2  |
| E  | 장승화 |    | ○ | ○ | ○ | ○ |   | 4 | 0 | 1  |



## 제 9 회 중 · 고연맹 회장기쟁탈 태권도대회

(단체전 및 개인선수권)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제9회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김천시립체육관에서 제 9 회 한국 중 · 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쟁탈전 및 개인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우수한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해 온 전통에 빛나는 중고연맹전은 아홉번 제를 맞아, 지방학교의 태권도육성을 위해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중등부 110명, 여자중등부 46명, 남자고등부 536명 등 총 692명이 참가하여 역대 대회 중 제일 많은 선수가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전국의 73개 학교가 참가하여 이제 태권도는 학교체육활동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구 10만이 채 안되는 김천에서는 이번 경기가 근래에 가장 큰 행사인 관계로 김광원시장을 비롯하여 시체육회관계자들이 각지에서 모인 출전 선수단을 영접하는 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4월 25일 오후 2시에 있던 개회식은 김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졌는데 이 자리에는 중고연맹회장인 김한선의원과 김광원시장을 비롯하여 이 지역의 박정수국회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한선연맹회장을 [이번 대회는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지방 보급에 더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중고등학교 선수들이야말로 86년 아시 아경기과 88년 올림픽에서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여 선전분투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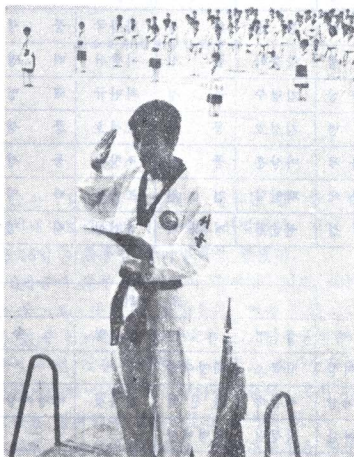
또 엄운규태권도협회부회장은 김운용회장을 대리하여 격려사를 통해 [이 대회를 통해 태권도 정신이 함양되고 상호기술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에는 먼리 멕시코의 제 2의 도사인 [과달라하라]시 [리카르도·페테츠]시장 일행이 참관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 중 · 고태권도연맹과 멕시코 [과달라하라]시 태권도협회의 자매결연을 위해 방한한 [페테츠]시장 일행은 서울시협회 어린이시범단에 감탄과 찬사를 연발하면서 귀국하는 대로 국기원과 같은 규모의 태권도장을 건립, 멕시코의 태권도보급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열전 4일간의 대회일정을 모두 끝내고 28일에 있었던 시상식에서 영예의 단체전 우승은 동성중학교, 청산여상, 서울체육고등학교에 각각 돌아갔다.

500여 출전선수들은 대회기간 중에 보여준 김



천시민의 따뜻한 보살핌에 깊이 감사하면서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한편, 이번 제 9회 중고연맹전의 단체 및 개인 전적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입상 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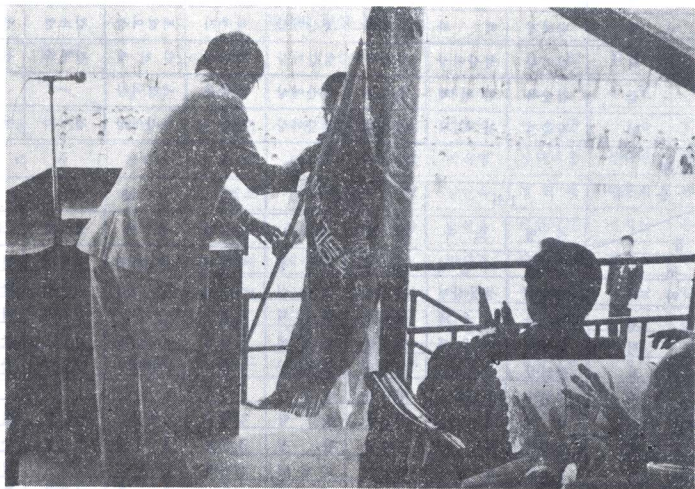
| 부별    | 중 등 부   | 여 고 부   | 남 고 부   |
|-------|---------|---------|---------|
| 우 승   | 동 성 중   | 청 산 여 상 | 서 울 체 고 |
| 준 우 승 | 배 명 중   | 인 천 체 고 | 동 성 고   |
| 3 위   | 경 복 체 중 | 배 영 여 상 | 성 동 상 전 |
| 감 투 상 | 중 생 중   | 동 명 여 고 | 전 남 체 고 |
| 장 러 상 | 김 천 중   | 혜 화 여 고 | 함 도 실 고 |

〈최우수선수〉

중등부 : 박봉권(동성중)

여고부 : 석희영(청산여상)

남고부 : 권기문(서울체고)



◇ 경 기 ◇

중 등 부

〈부별·체급별·개인 입상전적〉

| 등 위<br>체 급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 이해만 | 풍 생   | 윤성식 | 풍 생   | 김철호 | 배 명   | 양현석 | 동 성 |
| 푸 라 이      | 장 혁 | 서 울 체 | 윤정옥 | 동 성   | 함 준 | 완 산   | 박창국 | 풍 생 |
| 배 팀        | 정희석 | 배 명   | 구본영 | 풍 생   | 한중학 | 동 산   | 이종선 | 배 명 |
| 페 더        | 이회영 | 경 북 체 | 정명철 | 전 주 남 | 김영주 | 동 성   | 최만규 | 배 명 |
| 라 이 트      | 신재균 | 배 명   | 최명호 | 배 명   | 김성호 | 동 성   | 조성호 | 풍 생 |
| 웰 터        | 박봉권 | 동 성   | 우대훈 | 경 북 체 | 마상훈 | 풍 생   | 조창현 | 동 성 |
| 미 들        | 양대승 | 동 성   | 윤단철 | 경 북 체 | 백인덕 | 김 천   | 조준용 | 배 명 |
| 해 비        | 박달호 | 배 명   | 박만성 | 동 성   | 권순철 | 경 북 체 | 윤건성 | 배 명 |

여 고 부

| 등 위<br>체 급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 도재신 | 청산여상  | 손재숙 | 배영여상  | 천골조 | 배영여상  | —   | —     |
| 푸 라 이      | 송소영 | 동 명   | 김명옥 | 청산여상  | 서은숙 | 인 천 체 | 김옥경 | 배영여상  |
| 배 팀        | 임신자 | 인 천 체 | 백시오 | 청산여상  | 곽성림 | 배영여상  | —   | —     |
| 페 더        | 석희영 | 청산여상  | 이형순 | 전 남 체 | 송태경 | 동 명   | 박현용 | 인 천 체 |
| 라 이 트      | 박혜경 | 해 화   | 윤영분 | 청산여상  | 원주자 | 배영여상  | 김소영 | 인 천 체 |
| 웰 터        | 김미란 | 청산여상  | 김지숙 | 청산여상  | 배경남 | 인 천 체 | 김현숙 | 선 일   |
| 미 들        | 김순옥 | 인 천 체 | 전오순 | 청산여상  | 이금옥 | 배영여상  | —   | —     |
| 해 비        | 장윤정 | 경 북 체 | 장영란 | 청산여상  | 정영숙 | 청산여상  | 김미자 | 청산여상  |

남 고 부

| 등 위<br>체 급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핀          | 김지택 | 서 울 체 | 최 천 | 동 성   | 왕광원 | 전 남 체 | 강재영 | 전 남 체 |
| 푸 라 이      | 고정호 | 성동상전  | 김준배 | 동 성   | 서정현 | 동 성   | 전용환 | 동대문상  |
| 배 팀        | 권기문 | 서 울 체 | 이재규 | 부 산 체 | 배진수 | 청주기계공 | 신진천 | 배 영   |
| 페 더        | 김상배 | 서 울 체 | 정호영 | 전 남 체 | 신희성 | 전 북 체 | 남상국 | 동 성   |
| 라 이 트      | 장명삼 | 동 성   | 신상돈 | 동대문상  | 정용석 | 인천광성  | 양형수 | 풍 생   |
| 웰 터        | 나민수 | 성동상전  | 진태하 | 송 도 상 | 이국희 | 전 남 체 | —   | —     |
| 라이트 미들     | 허·연 | 동 성   | 김윤배 | 배 영   | 김종국 | 성동상전  | 이강길 | 전 북 체 |
| 미 들        | 박상식 | 수 성   | 이정진 | 한 성   | 조준형 | 전 북 체 | 신건성 | 부 산 체 |
| 라이트 해비     | 홍재관 | 풍 생   | 김현수 | 전 남 체 | 김광열 | 부 산 체 | 윤일선 | 성동상전  |
| 해 비        | 권용주 | 서 울 체 | 최남규 | 풍 생   | 정치호 | 세 종   | 김규만 | 군산중앙  |





## 석유대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태권도

성 준 경 사범

〈편집자 주〉

열사의 사우디에서 맘에 쏙은 편지가 한통 날아왔다. 3년전에 「리야드」의 새로운 국제공항인 「KKIA」의 건설현장에 파견된 이후 태권도를 보급해온 성준경 사범의 글이었다. 성 사범은 편지와 함께 35,000원의 장학금도 기탁해 왔다.

10년전부터 이루어 보려던 해외에서의 태권도 활동이 이제야 서서히 결실의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정작 내가 태권도인으로서 민간의 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누구에게 알아 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2년반이란 세월을 악조건의 기후와 많은 어려움을 뚫고 서서히 안정권으로 들어서고 있는 나의 태권도 보급활동은 한가지 교훈을 남길만한 일이라고 여기하고 싶다.

그리고 이곳 리야드 신국제공항내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수련생들이 원하는 태권도지를 통하여 자기들의 활동을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에게 알리고 싶다는 말을 전한다.

유비무환, 하던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신념아래 지켜왔던 나의 그동안 생활을 지면을 통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미국의 굴지 건설업체인 벡텔(Bechtel)회사에 취업한 것은 1979년 8월, 기온이 섭씨 50도이상 올라가는 제일 무더운 때이다.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얼굴과 코에 와 닿는 뜨거운 것은 마치 한증막에 들어간 것과 다를바가 없었고, 순간적으로 아차 잘못왔구나 하는 생각이 떠 올랐고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리야드 신 국제공항 건설의 한 일원으로서 참

여할 그 당시만해도 전지역이 모래벌판 인데다 목표물도 없고 끝없이 지평선만 보이는 광활한 사막위에서 살인적인 더위와 숨이 막히는 열풍과 모래바람 뿐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그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83년(내년) 8월 예정인 국제공항 준공식을 앞두고 現在 韓國기업체 9個 업체를 비롯해서 35個 建設業體가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는 신국제 공항內에서는 낮에는 열심히 맘을 흘리며 일일하고 일이 끝나면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즐기거나 갖가지 運動施設이 되어 있는 테크레이션 센터로 가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아울러 우리 韓國 고유의 武術인 跆拳道를 배울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누구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跆拳道를 外國人 子女들과 이곳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게 된 동기는 한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李尙畝氏(한국계 미국인)와 鄭敬훈氏(미통회사 근무, 전 跆拳道사범)의 도움으로 始作이 되었고 그외에 여러 美國人의 親切한 協同아래 이루어 졌다고 生覺된다.

1979年末부터 跆拳道 시범과 함께 始作된 普及 活動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쳐 왔지만 끈질긴 나의 執念으로 이제는 서서히 軌



아간 수련을 끝내고 수련생들과 함께, 중앙이 성준경 사범

도에 오르고 있다.

新 국제공항内に 있는 外國人學校(KKIA School)學生들 150여명을 가르치며 萬여명이 集團 거주하고 있는 宿所內 테크레이션 센터에 정식 스포츠 種目으로서 인가를 받아 테크레이션 弘報紙에 오르고 있으며 數 많은 젊은이들이 跆拳道에 興味를 갖고 배우기 위하여 줄을 잇고 있다.

外國人들 중에서 처음으로 跆拳道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직 “가라테”만 알고 있었으나 나의 계속적인 反復說明과 行動 動作으로서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실제로 여러차례의 시범을 통하여 跆拳道의 위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跆拳道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가는 곳마다 Tae Kwon Do Instructor Mr. Sung 반갑다고 하며 혹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人事를 시켜주고 또한 배우겠다고 제의해온다.

우리 말로 차렷, 경례로 부터 始作되는 나의 跆拳道 지도 방법은 모든 동작을 한국어로 구명하고 그 反面에 충분한 理解가 갈수있을 정도로 英語 說明을 해 준다.

修練生들의 人種도 多樣하여 미국, 영국, 잠비아, 스코트랜드, 멕시코, 호주, 그리스, 대

만,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 예멘, 시리아, 튀니지아 등으로 저들의 國語는 제각기 다를지언정 나의 통일된 한가지 用語로서 움직여지고 있으며 이와같이 15個國 人種이 함께 모여 跆拳道를 배우고 있는 集團도 드물 것이라 생각된다.

班 편성 또한 3個班으로 구성되어 아이들반,

(Children's class), 성인남자반(Men's class), 여자반(Ladies class)으로 구분하여 일주일에 3~4時間式 가르치고 있으며 2年半동안 오직 나 혼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처할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몇몇 美國人家族과 그리스 家族은 온 식구가 모두 跆拳道를 배우며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아파는 成人班, 엄마는 女子班, 아이들은 어린이班으로 편성이 되어서 각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있으나 그들간에는 恒常 스스럼없이 배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누가 더 잘하는가를 가려 보자는 表情도 옛 보인다.

아직까지도 사우디의 기후는 변함없이 건조하



여성부원들의 수련장경

고 살인적인 더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와같은 악조건을 이겨 나가는때는 세심한 주의와 철저



야간 격파 시범

한 건강관리가 절실히 요망된다.

지난 3월부터는 테크레이션센터 2군메를 번갈아 가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더욱 접치가 수련이 되고 있다.

지금의 내가 있기 까지에는 스승이신 이남석 관장님을 비롯하여 앞서 소개한 여러분들의 協調와 指導가 있었음을 알리고 감사드리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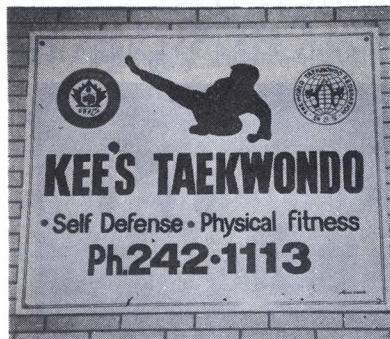
또한 앞으로도 계속 후원과 협조가 있기를 바라며 故國에 계신 그리고 海外에서 活動하고 계시는 跆拳道인 여러분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충고와 지도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35,000원이 작은 성의이지만 조국의 우수한 태권도 학생중 가난한 이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캐나다 「사스카툰」의 하기성사범

태권도 협회에 전자 계산기 1대 기증

세계연맹에 장학금 100불기탁



캐나다 「위니펙」시에서 88년동계 올림픽 개최지인 「켈라리」시 쪽으로 가다보면 인구 15만의 작은 「타운」 「사스카툰」이 있다. 「리자이나」시의 근처인 「사스카툰」에서 태권도도장을 열고 태권도 보급에 여념이 없는 하기성(7단)사범이

73년 10월 출국한 이후 지난 4월 5일 9년만에 귀국했다.

78년 캐나다 태권도 협회의 창설 「멤버」이기도 한 하기성은 현재 자기 소유의 80여평짜리 도장인 「기스 태권도 스쿨」에서 120여명의 문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편, 지난해에는 「매니토바」 「사스카툰」 「엘버타」 「맹쿠버」의 4개주의 태권도인들이 모여 서부지역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고. 또 81년에는 「사스카툰」의 경찰서에서 6개월간 태권도 지도를 담당하여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 그는 77년부터 동생인 하기승(5단) 사범이 전수한 태극 품세를 지도하고 있다면서 이번의 한달 남짓한 귀국기간 중에도 태권도의 새기술 습득에 몰두했었다. 하기성사범이 갈려자에게 전한 도장 운영 방식은 상당히 체계적이었다. 그는 태권도를 일반인들이 신체적성을 강화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왔다 많은 운동 중독이 난무하는 선진국에서 태권도의 과학적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선전하고 성공한 예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기성사범의





도장 경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우선 그는 도장 경영원칙을 세가지로 크게 분류했다. 첫째, 시합위주의 지도 둘째, 무도 본연의 정신적 측면을 강화한 방식 셋째, 신체적성(체력과 비슷한 말로 여기서는 Physical Fitness를 뜻함)의 강화에 역점을 두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단순한 시합위주의 도장운영만으로는 수련생들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각종 경기가 많이 열리는 중주국의 형편과는 또 다른 환경을 가진 외국의 사범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점인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경기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태권도 수련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몸세 경연대회 같은 예를 들면서 일정한 연령에 접어들면 도복을 벗어버리는 태권도인의 조로화(早老化)현상을 개탄하기도. 어쨌든 하기성사범은 앞서의 도장경영원칙 중에서 신체적훈련을 독특한 방식으로 태권도도장에서 지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체력! 하면 흔히 근력을 생각하기 쉽다며 그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권도는 전신운동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평형성, 근력, 지구력의 6가지 체력요인이 잘 조화된 상태가 신체적성이 우수한 상태이죠! 이 신체적성의 강화에는 전신의 주요 관절과 신경계통, 순환기

호흡계통, 각종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태권도야말로 최고의 운동종목입니다. 아마 수영의 운동효과에다가 「셀프·디펜스」의 능력을 「보너스」로 얻는다고나 할까요……」유창한 영어를 섞어가며 술술 이야기한다. 「물론, 태권도의 무도정신적 가치 또한 중요한 지도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태권도 정신의 각성은 최소한 유단자가 되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곳 캐나다국민들에게 태권도가 결코 시작하기 어려운 동양의 신비가 아니라 실제 생활을 명랑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뛰어난 스포츠라는 것을 우선 선전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 시작한 수련생이 태권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역사적 배경이나 운동역학적 설명과 아울러 태권도정신의 진면목을 조금씩 강의하는 것이지요.」 그는 태권도사범이 기능인으로 천락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한다. 하사범은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운동역학을 연필시켜 설명하면서 자기 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시키며 이때 유연성 훈련과 신체 각 부위의 협응성을 높이는 동작을 많이 한다고.

이어서 그는 자기가 「사스카툰」에서 실천한 도장 경영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도장의 경영은 우선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종의 시장조사와도 같은 개념이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선전



둘째 하덕삼군의 생일에 현지 친구들이 초대 받았다.

과 계몽활동이 시작됩니다. 선전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등 「매스컴」을 이용하거나 시범대회를 열거나 수련생들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거나 팜플렛을 돌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련생들이 주위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그 효과면에서나 지속성에 있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련등록은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하며 어린이는 3개월에 100~150 캐나다 달러, 성인인 150~175 캐나다 달러를 받는다 고 한다. 지금은 캐나다의 시민권 자로서 부인과 세 자녀와 함께 단란한 생활을 누

리고 있다. 「화머 바콘」 국민학교의 4학년인 하운상, 3학년인 하덕삼의 두 아들과 1학년인 딸 제인 하양은 공부 잘하고 예절 바른 모범생으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갈려자는 하사범과의 장시간에 걸친 대담에서 그의 진실한 인품과 자기 발전에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인종 차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적응해서 한국의 얼을 심고 있는 하기성, 하기승 두 형제 사범에게 깊은 격려를 보내며 전승 하시기 바란다.



윤상 제인 덕삼 남매



하기성 7단(오른쪽)과 하기승 5단(왼쪽) 두 형제 사범의 시범



## 사우디 이티팍 스포츠 클럽의 이 무진사범



81년 3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의 이티팍 스포츠  
클럽 초청으로 파  
견된 이무진사범  
(6단)이 휴가차  
일시 귀국했다.  
사우디에서는  
보통 취업 차 중

동에 진출한 태권도 인들이 여가 선용을 목적  
으로 현지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는 실정이다. 그  
러나 이 무진사범은 애초부터 태권도보급을 목  
적으로 「이티팍」 스포츠 클럽의 초청을 받아 파  
견되었다. 그는 「지금 사우디는 체육회 등록조  
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우디에 태권도 사  
범 비자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고 했다.  
이 사범도 처음에 월봉 1,200달러(미)에 가계약  
을 맺고 출국했으나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약  
2개월간은 현지 클럽에서 시험기간으로 보내야만  
했다고. 이 기간 중에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정  
식 계약과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이 사범은 처  
음의 두달이 악몽과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며  
두 손을 펴보였다. 온통 굳은 살이 덮이고 피멍울  
이 들은 채 편 그의 주먹은 한국의 태권도인이  
열사의 부국에 태권의 씨를 뿌리기 위해 겪은 고  
초를 웅변하고 있었다. 그는 멋지게 웃으며 「이  
제는 코가 높은 아랍인들이 태권도! 태권도!  
를 찾읍니다」고 말했다. 약 일년간의 「이티팍  
·클럽」에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클럽」측의  
재계약 요청을 받아 일단은 성공했다며 지난 1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권도 보급을 더욱 확  
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범의 활동상은 클럽에만 국한되지 않았



사우디 일간지에 실린 태권도 기사



이티팍 스포츠클럽 회원들



다. 그는 「담남」의 한국인 학교(교장: 정정환)에서 60여명을 지도해왔으며 이들 한국인 학교의 어린이들을 주축으로 시범단을 결성하여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범을 보여 왔다고.

이런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다란」경찰 학교에서는 9개월째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다란」경찰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시간은 주당 2시간으로 약 1,200명의 경찰관이 배우고 있으며 특수경찰대원 40명은 매일 수련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심사를 거쳐 3명의 유단자가 배출되었고 우리 체육회의 1년 예산보다 더 큰 「이티콕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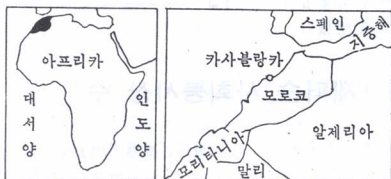
클럽」의 예산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이 사범은 파견 2년째를 맞아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지금은 부인과 자녀들과 같이 현지에서 제공된 주택과 승용차를 지닌채 단란한 생활을 지내고 있다고. 한편 주위에 있는 석유광물대학의 이태성사범, 함께 체육회에 등록된 이일주사범과 공영토건의 이재학사범등과도 자주 만나서 태권도 보급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아무쪼록 뜨거운 사막의 나라 「사우디」에서 한국인의 의지를 깊이 심어 민간의교에도 한 몫을 해 내기를 빌면서 성원을 보낸다.



사우디 동부지역 경찰국장 「아파스」씨에게 기념품 증정

## 아프리카의 모로코, 태권도협회창설!

〈모로코〉



(개황)

면적 : 44만 5천 5십km<sup>2</sup>

인구 : 1천 5백만

수도 : 라바트

기후 : 서부해안 지방은 온난, 동부 및 서부 내륙  
지방은 혹서와 혹한주민 : 아랍인 6백만, 베르베르족 3백만 기타, 유렵  
및 유대인

종교 : 대부분 회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지

브랄타」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모로코왕국이다. 「카사블랑카」직할시는 우리가 인상깊게 보았던 「험프리·보가트」주연의 영화 「카사블랑카」로도 유명하다. 1956년 3월에 독립한 이 나라는 초대 국왕 무하마드 5세가 1961년에 병사한 후, 그 아들 하산 2세가 즉위하여 입헌군주국으로 주요 산업은 농업이며 인구의 60%가 종사하고 있다.

모로코의 태권도는 1976년부터 보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태권도 수련생들은 모로코 유도 협회산하의 태권도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81년 5월에 태권도협회를 창설하여 독립하였으며 지난 82년 3월 1일에는 모로코 정부의 정식승인을 받았다고. 한편, 협회장에는 Elmediouri Mohamed, 부회장에 Tamam Abdelah, Bensouda Othman, 사무총장에 Lablan M' Hamed씨가 각각 취임했다.

### 태권도 인구 45만명의 스페인

스페인 태권도협회장인 최원철 사범(7단)이 사무총장 이원일 사범과 함께 지난 4월 7일 내한했다.

최 사범은 스페인에는 현재 150명의 한국 사범이 있으며 태권도 수련생만 45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아들인 「안토니오 사마란치」(23살, 초단)를 직접 가르

쳤다. 그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92년 올림픽을 스페인이 유스할 경우 태권도를 메달종목으로 채택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사범은 「스페인」이 지난 2월 남미 「에파돌」에서 열렸던 제 5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종합 5위를 차지, 메달 수에서는 한국 다음으로 많아 태권도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한편, 스페인에는 1천여 교포가 있는데 태권도사범인 김재원씨가 교민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김종성씨가 교문, 이수일사범 이영우사범 이선재사범 등이 부회장으로 각자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최원철사범은 70년에 스페인에 정착한 이후 유창한 스페인어와 영·불어 실력으로 많은 한국사범들의 권익을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 「바렌바렌」 IOC총회의 서울올림픽 유치작전에서 김

운용회장을 보좌,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현재 스페인에서 태권도도장 3개를 갖고 있으며 국제 예술품 경매장 회장직도 가지고 있다. 최사범은 스페인여성과 결혼, 1남 1녀를 두고 있다고.

현재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최사범은 79년부터 4차례나 중공을 방문, 체육지도자들과 태권도 보급을 위해 끈질긴 교섭을 벌여 머지 않아서 중공땅에도 태권도의 뿌리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 「플로리다」주의 김영군사범 「제퍼슨」사회봉사상 수상!

### 고아·불우청소년 돕기에 앞장

「플로리다」주 「울랜드」시에서 태권도장을 경영하면서 고아원돕기, 청소년마약중독자 돕기, 소아마비 어린이 돕기, 태권도장학회등을 설립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군씨(37세)가 지난 3월 29일 「제퍼슨」상을 수상했다.

「아메리칸 인스티튜트」가 사회공공 봉사자들을 선정, 해마다 시상하는 「제퍼슨」상은 고 케네디 대통령이 창설, 헌신적인 봉사로 미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주는 전국적인 상으로 김씨는 「플로리다」주에서 선정한 6명중의 한사람이다.

지난 78년부터 「울랜드」에서 Y K Kim태권도장을 경영하는 김씨는 매년 5월 31일 열리는 연례 태권도 대회에 수익금 전액을 인근 고아원에 회사, 80년에는 「오렌지 카운티」고아원에 6천불을 기증한데 이어 81년도에는 「에지우드 보이 스 랜치」(일종의 갱생원)에 7천불을 보냈었다.

또한 10대 마약중독자 수용소를 자주 찾아가 태권도를 지도하고 이들이 출감한 뒤에도 태권도를 통한 선도를 하고있다.

### 장학회 설립·매년 2명에 지급

지난해 8월에 설립된 Y K Kim 태권도 장학회를 통해 2명의 미국인 장학생을 선발, 그중

한사람인 「잭 먼포드」(24세 「발렌시아」대학 2년생 경영학 전공)씨는 마약복용자였으나 김씨의 태권도를 통한 선도에 힘입어 이제는 마약을 끊고 학업에 전념하는 모범시민이 된 케이스.

1천2백불의 장학금을 타는 또 한사람은 「플로리다」주립대 4학년생인 「윌리엄 엘글」씨(27세)로 그는 김씨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며 낮에는 UPS 직원으로 일하고 틈틈이 「엔지니어링」공부를 하는 성실성을 인정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김씨는 이외에도 CBS-TV가 후원하는 소아마비 돕기운동에도 협력하는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공헌한 사실들을 인정받아 이번 시상에 오르게 된 것.

금년 3월에는 「울랜드」시 1630 E. 「콜로니얼 드라이브」에 270여명에 달하는 종합체육관을 설립, 태권도장, 운동기구상, 「헬스클럽」등을 24시간 오픈하고 있다.

한때 뉴욕에서 채소가게, 그로서리, 의류점등을 전전하며 「패들러」경험도 있는 김씨는 이날 시상식에서 자신을 키워준 선배들로 이종우, 장영준, 박연희, 박동근씨등을 꼽았다.

지칠줄 모르는 일벌레로 알려진 김씨는 상경하에, 상부상조, 정직, 언제나 약자편에서 돕는다는 도장훈을 갖고 수련생들에게 겸허한 정신 훈련을 시킨다고 말했다.





## ! 者の 한마디

### 기견(奇虔)의 청맹(靑盲)을 아십니까?

기견은 이조 시대 세종임금 때 평민으로서 관직에 발탁되어 지평·연안부사·제주목사·관찰사 등 지방관을 역임하고 대사헌·판증추부사등의 중앙관직을 지낸사람이다. 그는 오랜동안 포의(布衣)로 재야(在野)했기 때문에, 백성의 일상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이해했었다.

일찌기 연안부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붕어를 잡아다가 바치자 그는 농사에도 바쁜데 태수를 위해 붕어를 잡는 것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폐가 된다고 생각하여 붕어를 못먹는 다고 해서 재임 3년간 이를 먹지 않음 뿐 아니라 술도 못한다 하면서 먹지 않았다. 드디어 연안부사직을 떠나면서 연안의 노인들이 전별연을 베풀자 그 제야 술을 마셨다.

또 그가 제주목사로 갔을 때 전복을 잡는 해녀들이 춘하추동 차가운 바닷물에서 수고하는 것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폐가 될까 보아 여기서도 역시 3년간 전복을 입에 대지 않았다 한다.

그후 기견은 단종임금 때 대사헌까지 지내다가 수양대군이 집정하자 벼슬길에서 물러났다. 수양대군은 그 같이 청렴·근검하며 유능한 사람을 잃을 수 없다고 여기고 그를 등용하고자 다섯번이나 기견의 집을 찾아갔으나 눈쁜 장님(靑盲)이 되었다면서 벼슬을 완강히 거절했다. 의심쩍게 생각한 세조는 기견이 정말 청맹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바늘로 눈을 찌르려고 했으니 기견은 눈을 똑바로 뜬채 피하지 않아 세조는 그를 훌륭한 충신이라고 돌려보냈다.

그는 청백리에 록선되었다.

우리 태권도인은 의기와 절개를 지키기를 기견과 같이 할뿐 아니라 가르치는 제자·후배들에게도 하찮은 폐를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태권도인의 공(公)·사(私)생활에서 지녀야할 덕목(德目)이 될 때 우리는 의식개혁의 당연한 선도자가 되리라고 믿는다. <願>

이 난은 일선 사법들을 위한 칼럼입니다.

평소에 느낀 개선요망사항이나 제언의 뜻을 판제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의견을 훌륭한 고사나 실례에 반영하여 이 난을 엮어 나가겠습니다. 사법들께서는 이 난의 이야기를 문하생들에게 널리 알려서 나라 사랑의 역군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칼럼! 者—

# 태권도는 우리 학교의 자랑

- ◇..... 국기태권도는 이제 취학 전 유아들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 ◇.....이르기 까지 각급 학교에서도 교기화(校技化)의 막을 열고 있는 것 같다. ....◇
- ◇..... 특히 일년에 8만8천9백36명(81년도 청소년 백서에 의거)에 달하는 청소년 범죄.....◇
- ◇.....를 생각할 때 태권도야말로 예절과 절도의 지혜를 행동을 통해 배우는 산교육이라.....◇
-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을 실제로 학교교육에 적용하여 크게 성공한 학교를 선정하.....◇
- ◇.....여 태권도지에 소개하는 일도 청소년문제에 작은 도움이 될까 하여 먼저 남·녀고.....◇
- ◇.....등학교 한 학교씩을 수록한다. <편집자주>.....◇

## 경 북 여 자 상 업 고 등 학 교

체육주임 박 은 영 (5단)



**3,200명의 예비숙녀들 체육시간에 태권도 수련중, 태권도부도 창단예정!**

경북여자 상업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여자 상업고등학교입니다. 금년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최고 여상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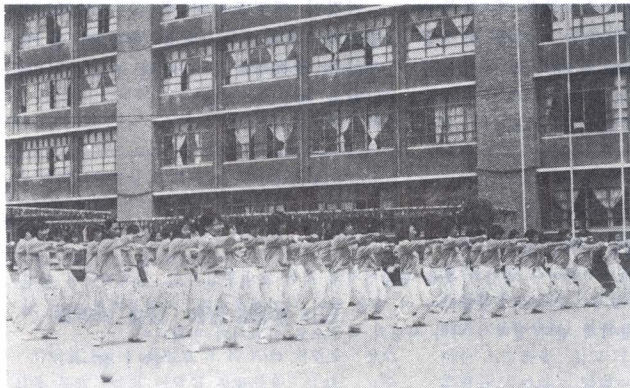
임초, 저는 경북 여상학생들은 오로지 공부만 하는 착실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로써 학생들의 성격이 자칫 이기적이며 소극적이기 쉽다 생각했습니다. 또 명랑하지 못함을 저는 절실히 통감하여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체육시간에 매일같이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주위는 대구에서 학교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인 만큼 우리학교 체육시간의 태권도

합성에 다른학교 학생들도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는 소리가 높아져 가지요.

이제 전교생이 기본 동작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이 아름다운 예비숙녀들을 위해서 태권도를 지도 할것입니다.

또한 태권도부도 창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 소개>

교 장 신 태 수



대구시내 가장 중심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학교는 주택지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조용하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3,200명의 전교생이 인자하고 훌륭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성실』을 제 1의 교훈으로 모든 일을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상징인 『석류』마냥 곱고 알차게 영어를 한알한알이 익어 터지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로서 매주 목요일마다 방종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매월 1번씩 강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반성과 자아의 발전을 기약하며 하루 하루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저축신앙양을 위해 교내 은행이 마련되어 전교생이 1인 1통장을 가지고 절약하는 습관을 몸소 익히고 있습니다.

국 화합기가 교정에 흠날릴때 우리들의 가장 큰 잔치인 석류 종합전시회와 체육 대회가 열려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향상을 위해 교내에 훌륭한 시설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산실, 무기실, 타자실을 비롯하여 새로이 컴퓨터실까지 마련하여 모든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 일일계 고등학교 운영심사결과 여학교로서 1등의 영광인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틈틈이 익혀온 실력을 발휘하는 대구시내일업계 학생들의 실기경진대회에서도 종합 우승을 거두어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여성학생들은 정서교육을 위해 오전마다 명상의 시간을 나누며 점심시간에는 방송실운영으로 교양있고 품위있는 여고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머우기 울봄부터 화랑의 묵에인 태권도를 전교생이 수련하고 부터는 활달하고 예절바른 경북여성학생들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단아한 교양, 성실한 실력, 아름다운 건강을 고무갖춘 우리학교 학생들은 분명 훌륭한 예비숙녀들이라고 믿읍니다. 나는 체육시간에 물리는 합성, 『태권』이 참으로 믿음직스럽읍니다.

## 수 도 공 업 고 등 학 교

수도 공고 태권도 사범 오 합 숙



전통있는 무예, 국기태권도를 교기로 삼은지 5년지, 덕, 체, 용을 행동으로 실현한지 5년동안 전교생 유단화를 목표로 수련한 결과 배출한 유단자는 2단 70명 초단이 7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재학생 중 2단이 23명 초단이 150

명으로 3학년은 승단대회 1,2학년은 승급대회를

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권도 수련은 『건강한 정신인력』의 양성이라는 높은 이상아래 『노력과 땀이 있는 곳에 열매와 길이 있다』는 옛말을 거울 삼아 이곳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태권도를 교기로 선정, 전교생의 인간교육을 이끌어 주신 홍두표 교장님, 박상호 체육부장님, 여러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면을 통해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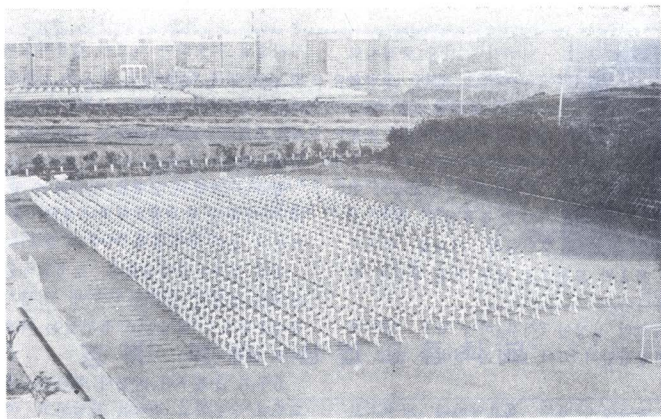
이제, 앞으로도 강인한 체력과 올바른 정신력



을 지닌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열과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개포별 하늘가에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태권도

의 합성이 우리학교의 밝은 미래와 부강한 조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 <학교 소개>

### 교 장 홍 두 표



면벽 3년 기념비가 내려다보이는 자유의 생활관 새벽 6시. 기상음악에 따라 운동장에서 아침 점호가 시작되고 전교생 1,800여명의 하루가 시작되는 외침.

“하루를 활기차게, 일년을 희망차게, 삼년을 보람차게”라는 젊은 건아들의 뭉쳐진 합창은 새벽공기를 가르며 개포별에 울려 퍼집니다. 수도공고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458번지, 대모산과 구룡산의 정기서린 개포동 들판 3만여평의 교지 위에 전력산업을 이끌고 갈 기술인 배양의 산실이요. 요람입니다. 개교한지 57주년, 전력 분야 특성화공고로 출범한지 5년에 접어든 우리 학교는 그간 한국전력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고 여러교사 학생들의 노력한 결과 이제는 어느 학

교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0년도 교원 교육 우수교, 81년도 문교부의 최우수공고로 선정되어 수상한 영광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우리 학교의 특색은 우선 신입생을 전국적으로 우수한 중학생(10%)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특차로 선발합니다. 완전 장학제도인 전액 장학금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피복, 교과서, 학용품을 무상공급하며 전교생을 기숙사에 수용식사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전국 제일의 장학제도를 가진 선택된 학교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자랑못지 않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항상 질서를 존중하고 예절이 바르며 활발한 기상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시민의 소양을 학교생활중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지난 5년동안 교기로 삼아온 태권도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전교생의 유단자화를 위해 애쓰시는 오합숙사법님, 체육부장선생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학교의 교기, 태권도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 제 3 회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제공



김운용회장이 격려의 말씀을 했다

## 광희국민학교, 3연패의 영광차지

5월1일부터 2일까지 국기원과 장충체육관에서 어린이달을 맞아 전국의 태권도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닦은 실력을 겨루었다. 재작년부터 시작한 이 대회는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서울남산청년회의소가 주관하여 일년에 한 번씩 어린이달에 열린다. 올해의 제 3회 대회는 첫째의 38개 국민학교, 작년 2회대회의 62개교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99개 학교가 참가했다. 이제는 태권도를 익히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없는 곳이 없게 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지방학교가 41 개교나 참가하여 서울의 태권도 어린이들에 못지 않는 우수한 기술을 뽐내었다. 서울의 수 많은 태권도 어린이들은 이번엔 처음 출전한 강원도 진부 국민학교 어린이들과 충북한별, 모충 국민학교, 전주의 완산 국민학교 어린이들과도 금세 어울려

오랜 친구들처럼 다정하게 지냈다. 이것은 태권도를 통해 배워 익힌 겸손한 마음과 예절 바른 말씨와 씩씩한 기상 덕분이라고 아버지들과 선생님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태권도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행사보다 더욱 질서정연하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열띤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우리편과 상대편을 가리지 않고 보내어 보는 이들은 모두 호뭇한 마음을



개회식광경

나누게 되었다.

첫날의 국기원 경기장에서 예선을 치른 이번 대회는 준결승부터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졌다.

오후 2시부터 벌어진 개회식에는 김윤용대한 태권도협회장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중이던 IOC(국제올림픽위원회)회위원인 소렌슨(덴마크)장군과 김희장, 엄운규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조광실 재일태권도협회장, 송수안 서울남산청년회의소 회장 등 많은 인사와 1만여 어린이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개회식에는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의 시범도 곁들여



졌는데 T.V등에서만 보아 오던 태권도시범을 직접 본 어린이들은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면서 열렬 박수로 시범단어린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 대회에는 마칠 한국을 여행 중인 많은 외국인들이 구경하러 왔었다. 그들은 우리 태권도 어린이들의 솜씨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기가 막힌 모습을 내내 하고 구경했다.

한편 핀급부터 헤비급까지의 결승전에서는 첫 대회부터 작년까지 2년 연속으로 종합우승을 한 서울 광희국민학교가 강력한 우승후보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결승전이 진행되면 될수록 아슬아슬한 시소게임이 펼쳐져 오히려 뜻 밖의 지방학교 어린이들이 이름난 선수들을 꺾어 예측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백명으로 이루어진 응원단의 열화같은 응원에 힘입은 광희 A팀선수들이 금 1, 은 2, 동 3 등 6개의 메달을 따내어 우승함으로써 영예의 3연패를 거두었다. 한편,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성남 제 2국민학교는 이번엔 기어코 광희국민학교에 설욕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싸웠다. 그러나 재작년 1회대회의 푸라이급 우승과 작년 2회대회의 밴텀급 우승에 이어 올해 3회대회에서는 라이트급의 우승을 노린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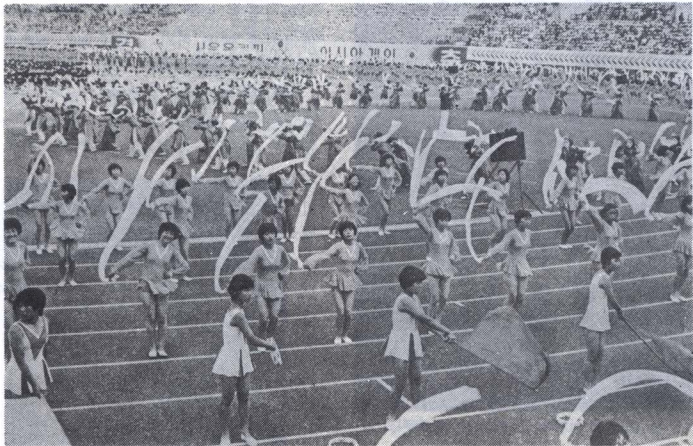


소렌슨 IOC위원(덴마크)이 시상식에서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 제1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충남 태권도협회 제공

13개 시·도 대표선수들 한발에 모여  
고장의 명예를 거둬!

1982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충청남도 대전 시에서 제1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렸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향토의 명예를 걸고 학교에서 닦아온 체력과 기술을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체육잔치인 소년체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소년·소녀들이 한민족의 긍지를 지니게 하고 서로 협동케 하며 민족통일의 사명감을 드높이는 데 행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힘차게, 정답게, 아름답게」라는 표어 아래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인 대전에서 열린 이번대회에는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 이원경 체육부장관, 조상호 대한체육회장과 김운용 회장등 각계의 어른들이 많이 참석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소년·소녀들을 격려했었다.

개회식전은 멀리 화랑들의 발상지였던 경상북도 경주에서 화랑과 원화로 뽑힌 경주중학교 3학년 이동기·박형원·전시형·김의겸군들과 근화여중 3학년 임인주·현은실·정정혜·오은희양들에 의해 불을 붙인 성화를 영친, 추풍령, 옥천, 대전을 잇는 257.8km를 달려온 26개 중학교의 주자들의 맨 끝엔 주자인 송악중학교의 박병준선수가 대회장인 대전공설운동장의 성화대에 점화함으로써 절정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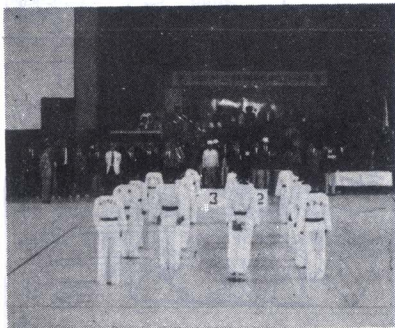
한편, 개회식에는 청란여고 언니들의 고적대 「퍼레이드」와 신일여중과 청란여중의 1,000여명 소녀들의 탈춤을 주로 한 한국무용이 이채를 띠었으며, 대성여중의 500여 학생들이 민속놀이인 「붕기뽕어놀이」를 선보여 크게 칭찬을 받았다.

이번의 「붕기뽕어놀이」는 십 주민들이 1년동안 고기잡이가 잘 되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고 즐기는 놀이로서,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을 그대로 전승하려는 의미가 있다.

태권도경기는 금메달이 8개나 걸려 있는 중요

한 종목으로 각 시·도의 선수단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이번부터 86년 서울의 아시야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을 겨냥해 우수한 기록과 잠재성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려는 뜻에서 「메달」집계를 부활했기 때문이었다.

태권도 경기는 5월 20·21일 이틀간에 걸쳐 충남여고체육관에서 열렸다. 총 13개 시·도팀이 치열한 「메달」경쟁을 벌려 많은 관중들이 모였다.



첫경 기에서는 각 시·도 선수들의 태권도기술이 비슷비슷해서 준결승에 골고루 진출했다. 그러나 역시 태권도인구가 많은 서울이 전남·충남·전북을 적은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이날 밴텀급 경기에서 충남의 김현주는 충북의 이찬희를 맞아 공격의 우세를 보이다가 빗자기를 옆

구리에 정확히 차넣어 판정승을 거두었으며 대부분의 선수들도 아슬아슬한 우세로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심판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튿날, 8개의 금메달과 은메달, 16개의 동메달이 어느 팀으로 갈는지 초조한 각팀 임원들은 필승의 작전을 짜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제일 먼저 열린 빈급경기에서 충북의 김상태는 경기의 이해만을 맞아 1회 1분20초 만에 찍어차기를 얼굴에 명중시켜 K.O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김선수는 결승에서 서울의 강철우에 본패하고 말아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는 별다른 항의소동이나 잡음없이 원만히 진행되어 대회관계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어떤 물상식한 한사람의 관중이 난동을 부려 화기애애하던 경기장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전과가 다섯번이나 있는 불량배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앞으로는 대회에 참가한 임원·선수들은 물론 관전하는 관중들도 올림픽유치 시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틀간의 태권도 경기중에는 김운용회장이 충남협회 임원과 각 시·도 팀을 일일이 찾아 격려해 주시고 또 선수들에게 선전분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조상호 대한체육회장도 경기장에 들러 관계자들과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했다.

#### 〈계급별 전적〉

| 계 | 급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성 명   | 시 도 별 | 성 명   | 시 도 별 | 성 명   | 시 도 별 |
| 빈 |     | 강 철 우 | 서 울   | 김 상 태 | 충 북   | 이 기 현 | 충 남   |
| 플 | 라 이 | 양 승 득 | 충 남   | 함 준 전 | 전 북   | 방 교 성 | 인 제   |
| 밴 | 텀   | 김 현 주 | 충 남   | 이 종 선 | 서 울   | 한 용 은 | 세 진   |
| 페 | 터   | 신 재 균 | 서 울   | 배 종 일 | 부 산   | 양 정 명 | 국 제   |
| 라 | 이 트 | 김 경 환 | 서 울   | 조 문 준 | 충 남   | 강 이 명 | 충 북   |
| 웰 | 터   | 진 승 구 | 전 북   | 하 성 호 | 충 북   | 박 마 중 | 충 남   |
| 미 | 플   | 양 대 승 | 서 울   | 공 호 권 | 충 북   | 이 재 호 | 충 남   |
| 헤 | 비   | 추 교 일 | 충 북   | 김 세 영 | 경 기   | 김 기 상 | 강 구   |

# 태순녀

최경철





## 중앙협회, 태권도선수 상해보험 실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각종 태권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대책으로 대회기간 중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킬 것을 결정, 선수의 안전한 보호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상해보험은 주한「아메리칸 홈」보험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1인당 700원(3~4일간)에서 1,000원(5~7일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시에는 최고 350만원의 보험금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협회에서는 대통령기 대회부터 이를 실

시했는데 우선 보험료의 50%를 협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구미선진국에서는 상해보험이 일반인과 스포츠맨을 막론하고 생활화되어 있어 유명 선수들은 다리·팔등 신체의 중요부분에도 막대한 금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의 상해보험가입의 의무화 조치는 즉각 실효를 거둬 대통령기 경기 중 미끄러져 대퇴부 골절상을 당한 정범수(경희대)선수는 약 35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게 되리라고,

## 내년초 제1회 「월드·컵」태권도대회 창설

세계태권도연맹은 다가오는 83년 1월 초순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에서 제1회 「월드·컵」태권도대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4월 9일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맹맹 사무처(사무총장:배종호)에 의하면 이 대회는 초청대회로 치르며 6개 대륙대표 16개국이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제1회 태권도 종합시범 발표회

국기원에서 지난 6월 25일 오후 4시부터 KBS제 2TV의 협조아래 태권도 종합시범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시범발표회에는 성인시범단(단장:김영작), 여성시범단(단장:차용훈), 어린이시범단(단장:이규형), 유치부시범단(단장:최장식)이 합동으로 70여종의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약 70분간에 걸친 이번 종합시범은 국기원 기술심의회(의장:이병로)의 연구분과위원회(부위원장:안해옥)의 주도하에 계획되어 그동안 정립되지 않았던 시범체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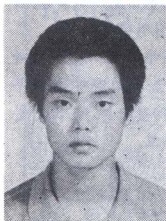
이날 시범발표회는 집행위원장인 정찬성연구분과위원(중앙대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 데

호국체조 I, II, III으로 이름지어진 여성시범단(은평여고태권도부)의 「리드미칼」한 태권도무용은 요즘 유행하는 디스코음악에 아주 잘 어울려 여성태권도의 새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KBS제 2TV에서는 6월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45분까지 1시간여에 걸쳐 종합시범발표회의 녹화내용을 방영하여 호평을 얻었다

## 불우 이웃돕기의 미담 한토막



역경을 딛고 국가대표  
6회선발의 위업을 세  
운 김종기선수

「슈트트가르트」 제 4회 세계대회 밴딩급 우승과 최우수선수상을 받고 귀국한 김선수는 암으로 판정난 어머니의 병석에서 빛바랜 검은 머를 깎으며 눈물을 참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감추고 계속 정진한 그의 태권도는 한땀 한땀을 정화시킨 듯 화려한 선승경력을 쌓아 나갔다. 올해까지 그는 세계선수권 3연패, 아시안선수권 2연패로 기린장, 거상장, 백마장등 체

메달과 훈장이 결국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효심의 기적을 낳았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고 3개의 체육훈장을 받은 국가대표 태권도선수 김종기(24, 해군)군은 암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어머니 앞에서 울 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79년 서독

육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부터의 체육연금 혜택은 배풀어 지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는 어머니에게 눈물어린 효심 밖에는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나 그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도하 신문에 딱한 사정이 보도되자 각계에서 성원이 답지했다. 도애가 유근형옹이 기탁한 100만원을 필두로 김운용회장이 금일봉을·전달했으며, 대통령부인 이순자여사가 금일봉과 함께 원자력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또한, 해군에서도 이은수참모총장을 위시한 장병들이 격려금 35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김선수가 모친의 입원수속을 할 수 있도록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심판분과위원회등 태권도선배들이 성금을 모아 불우한 처지에 있던 후배선수에게 용기를 북돋는 미덕을 발휘, 체육계의 부러움을 사기도.

## ITF(국제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맹에 흡수통합하기로!

친북괴인사인 최흥회가 이끌던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세계태권도연맹에 흡수통합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ITF의 김종찬사무총장과 최창근심사위원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의 「코리

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F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단체이며 국제경기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태권도연맹(WTF)에 통합될 것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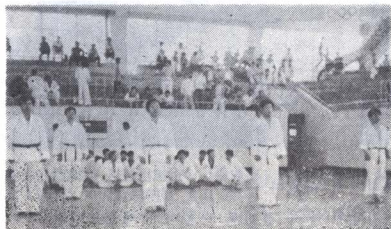
했다」고 밝힘으로서 알려졌다.

이들은 통합조직으로 「첫째, 명칭은 김운용씨가 총재로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으로 둘째, ITF 측은 부총재직과 심사위원장 및 유럽연맹회장직을 안배받는다. 셋째, 세계연맹의 재편성은 동등한 비율로 한다. 넷째, 도복·경기용구등의 기술·경기적 문제는 세계연맹측을 따른다.」는 것들이다. ITF는 지난 1월 19일 터론토에서 이

사회를 열고 13명의 집행위원 중 11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한편, 최홍희는 ITF의 관찰도장이 69개국에 수백개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해 10월 IOC의 공식조사결과 WTF가 47개국 NOC에 가입된 반면 ITF는 북괴와 피지 두개 NOC에만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 성동서 경찰관 22명 승단심사에 응심



제105회 승단심사에 성동경찰서 박상호경위(48)를 비롯한 22명의 경찰관은 그간 바쁜 일과 틈틈이 수련해온 끝에 응심하여 영예의 초단 입문을 달성했다.

이번, 승단심사에는 최매상순경(28)이 제일 나이가 어렸으며 최고령자는 이용호씨(52)로서 대부분 40대의 중년층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 김천시민의 흐뭇한 인정

경북 김천시(시장: 김광원)의 시민들이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제 9회 중교연맹대회에 참가한 46명의 여교부 실수전원을 15개 가정에서 민박을 시킴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훈훈한 정을 느끼게 했다.

이것은 김한선중교연맹회장이 연맹창립 이후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에 여교부경기를 제외할 수 없다는 결심에 따라 김천시의 유지들과 협의, 민박을 하게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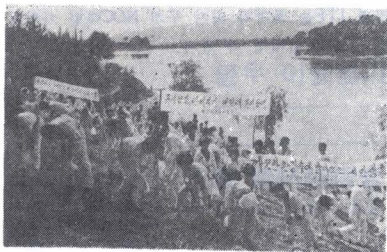
중교연맹, 박창덕전무이사는 「스포츠선수라

고 해도 나이찬 딸들을 객지여관에 투숙시킬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고심했을 때 김천시민의 포근한 인심으로 해결되었다고 감사해 했다.

동명여교 학생 3명을 받아 민박을 베푼 김길수씨(보건당약국)는 「민박을 자원했지만 태권도 선수들이라 왈가닥인 줄 알았을 때 다른 여교생들 보다 예의 마르고 얌전해 우리 딸도 태권도를 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 충주태권도가족, 자연보호캠페인 벌려



지난 6월5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충북태권도협회소속 중원지회(회장 최광수)임원 및 산하 6개 도장 수련생 400여명이 호암유원지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벌렸다.

관광철을 맞아 유원지의 환경정화운동으로 실시된 이날 캠페인에는 김태수 충주시장도 참석, 태권도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수 많은 태권도가족들을 격려했다.

## 난동자는 태권도인이 아닌 전과 5범

지난 5월 충남 대전에서 있었던 제11회 소년체전, 태권도경기장인 충남여고 체육관에서 난동을 부린 김선홍(20)은 전과 5범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수사를 해온 대전경찰서와 전남체육회는 수배 중인 김이 전남태권도협회의 관계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김은 영구히 체육단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대한 체육회에서 내렸다.

이번의 수사 결과로 난동자가 태권도관련자가 아닌 것이 밝혀져 불명에는 씻었으나 금후, 경기장에서 관중들의 지나친 흥분을 예방하는 경보장치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겠다고 한 경기관계자는 농담을 했다.

## 캐나다 선수 9명 전지훈련차 방한

캐나다 「앨버트」주 「캘거리」시의 이준재 태권도학교의 유단자 9명이 지난 4월29일 종주국태권도의 진수를 배우기 위해 내한했다.

약 한달간의 훈련일정을 계획하고 종주국을 찾은 벽안의 태권도가족들은 공항에서 공장 국기원을 예방, 엄운규부회장의 영접을 받았다. 이들은 전주의 팔마체육관에서 강훈련에 돌입했

는데 이번 전지훈련에 참가한 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Pat Teevens(27) 2단, Keith Black(22) 2단, Sant Thinet(24) 1단, Dave Scotland(25) 1단, Dave Bearlier(24) 1단, Doug Brown(24) 1단, Doug Thanynson(21) 1단, Elsieo D'Altorio(24) 1단, Ray Gaetz(21) 1단,

## 중·고연맹 멕시코 파달라하라시협회와 자매결연



중고연맹회장 김한선의원이 「로페츠」 파달라하라시장과 나란히 자매결연패를 들고 있다.

지난 4월 김한선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리카르도 사베즈 페레즈」 멕시코의 「파달라하라」시장은 이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멕시코의 태권도보급을 위해 「태권도협회와 한국 중·고태권도 연맹간의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파달라하라」시에 태권도 종합체육관을 국기원정도의 규모로 건립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태권도협회의 총무부장인 이석원사범을 동체육관의 책임자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는 오는 여름방학 중에 김한선 회장을 비롯한 중·고연맹의 임원 및 선수단을 정식으로 초청, 교환경기를 창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석원사범은 6월 중순, 멕시코로 떠나 현지의 TV방송국에 출연하는 등 태권도보급에 다방한다고 알려졌다.

## 서울시 체육회(회장 김성배서울시장) 태권도 우수선수 2명에 장학금지급



장 명 삼



전 웅 환

서울특별시 체육회는 지난 6월 29일 서울시체육회 강당에서 82년도 서울시 장학생을 선발·시상했다.

매년 서울시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온 시체육회는 금년 4월 이후에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는 각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정, 엄격한 심의 끝에 태권도에서는 동대문상고의 전웅환(3학년)선수와 동성고의 장명삼(3년)선수가 핵심자로 선발되었다.

두 선수는 모두 지난 2월의 제 5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자가 플라잉급과 페더급에서 우승한 바 있다. 평소 예절이 바르고 학업에도 열중한다는 두 선수는 앞으로 국내의 각종 태권도 대회의 유망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앞으로 초·중·고·대학생들 중 품행이 방정하고 태권도수련에 열의가 높은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의 수여

혜택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이번에 3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은 전용환선수

와 장명삼선수는 모두 어머니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 국제 스포츠영화제에 「국기태권도」수상

스포츠 영화로 제작된 「국기태권도」가 6월2일부터 9일까지 이태리 토리노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스포츠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제네바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스포츠영화 63편이 경연한 이번 영화제에는 이태리 국영TV

방송국이 중계방송했다. 이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은 IOC의 종신 명예 위원장인 「마이클 킬러」경이 었다.

이번에 특별상을 받은 「국기태권도」는 김성인 감독작품으로 국립영화제작소가 출품했다.

## 스페인의 어수일, 이선재사범 훈장 받아

지난 4월, 스페인에서 활약 중인 어수일, 이선재 두 사범이 스페인정부로부터 「메다자 데 메리토 데 포르티보」훈장을 받았다. 이것은 스페인이 79년 제 4 회 세계선수권 6위, 80년 유럽선수권 청소년부 1위, 「월드·게임」 4위 등을 비롯, 급년의 제 5 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 2, 동 5의 좋은 성적을 올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한 결과이다. 특히 두 사범은 지난 에콰돌 5회 세계대회에 스페인팀의 감독(어 사범)과 코치(이 사범)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어수일사범은 76년도 부터 가르쳐온 「콜

렉쇼·에이테스」여학교를 비롯 여러개의 자기도장에서 지도하고 있다. 또 이선재사범도 「플레키오·바라나인」국민학교 등 태권도보급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한편 스페인 태권도협회에서는 올해 9월에 이태리 로마에서 있을 유럽선수권대회에 대비, 대표선수들의 강훈련에 돌입했다고.

이번의 훈장 수상은 동양인으로서로는 물론 무도관계로도 처음있는 영예이기 때문에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국기원을 방문한 두 사범은 가슴을 뻐다.

## 자유중국 대표선수들 전지훈련차 내한



자유중국 태권도국가대표선수단이 오는 11월의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비 중주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약 한달간 이규형(6단)사범의 지도로 숨씨를 가다듬은 후위성코치 등 13명의 중국선수들은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된 무더위도 잊은 채 맹훈련을 했다.



# 동남아 태권도에 관한 고찰

유도대학 교수  
대한태권도협회  
국제분과위원장

李 圭 錫

## ◇ 편집자 주 ◇

- ◇...우리 종주국의 태권도 선수들은 매우 강하다. 그것은 세계선수권대회의 5연패라는...◇  
 ◇...경기기록이 증명한다. 그러나, 태권도의 질적수준이 경기의 승패로 국한되어 평가...◇  
 ◇...될수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승(勝)단 신사를 지켜보면서 과연 종주국 태권도의...◇  
 ◇...기술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고 했다. 이것은 태권도...◇  
 ◇...수련생들의 일차적인 목표인 단(段)증과 그들이 얼마나 수련내용과의 일치되지 않...◇  
 ◇...는 실력의 불균형을 적정하는 소리라고 생각된다. ....◇  
 ◇...특히 유도대학의 이규석교수가 기고한 "동남아 태권도에 대한 고찰"에서는 현재...◇  
 ◇...동남아 여러나라의 태권도 수련과정이 태권도 유(流)단자의 양산현상을 보이는 중...◇  
 ◇...주국의 수련내용 보다 오히려 알차게 느껴진다. 특히, 엄격한 심사기준은 무도본...◇  
 ◇...연의 자세를 지킨다는 면에서 고무적으로 느껴진다. 우리 종주국 사람들은 결코...◇  
 ◇...양위주의 문화생양성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지...◇  
 ◇...녀야 할 것이다. ....◇

## 목 차

- 제 I 장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제 1 절 태권도의 정의  
 제 2 절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제 II 장 동남아 태권도의 현황  
 제 1 절 Malaysia  
 § 1. 사법연혁과 지도방법  
 1) Perak주  
 2) Selangor주  
 3) Pahang주  
 4) Sabah주  
 5) Sarawak주  
 6) Wilayah주  
 § 2. 審 査  
 1) Selangor  
 2) Sabah  
 제 2 절 Singapore  
 제 3 절 Hong Kong  
 제 4 절 Thailand  
 제 5 절 Philippine  
 제 III 장 결 론

## 제 I 장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 제 1 절 태권도의 정의

태권도의 정의에 대하여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태권도는 모든 동작이 자아 방위 본능으로 하여 수련에 따라 점차 소극적인 동작에서 적극적인 행동단계에 이르는 동시에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의 경지에 도달하여 ① 평화를 사랑하고 ② 예의에 밝으며 ③ 겸손하고 ④ 청렴 결백하며 ⑤ 백절불굴의 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무도로서 지, 덕, 체의 인간완성의 길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이다.<sup>1)</sup>

1) 박해만저 : "태권도" 컬러판, 세계백과대사전 제 18권 서문당, 1978, p. 600.

한편 문교부에서 발행한 태권도교재에서는 태권도란 아무런 무기나 호구도 갖지 않고, 발로 뛰고 차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손 또는 주먹으로 지르고, 찌르고, 때리고, 막는 기술에다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인간(무도인)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운동이다<sup>2)</sup>라 하였다. 그리고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 발행한 태권도 교본에서는 「태권도란 인간생존 의식의 육체적인 표현인 동시에 정신적 육구를 구체화하려는 체육적 활동이라 하겠다. 태권도의 모든 동작은 자아방어 본능을 기본으로 하여 점차 필요성에 따른 신념의 작용으로 소극적인 동작에서 적극적인 동시에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철학적 요소를 지닌 체육이다.」<sup>3)</sup>

이들 정의를 요약하여 보면 「태권도란 신체적 훈련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수양을 쌓는 무도 즉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드는 체육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동서의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원시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획득하였으며 때로는 다른 종족과 투쟁하면서 생존하게 되므로 자연 생활의 요구에 따르는 건강한 신체 즉 체력, 끈기, 지능 등이 투쟁 또는 방어무술로서 필요하였다.<sup>4)</sup>

한편 우리 나라의 태권도는 고유전통무술로서 약 2000년전(B.C. 37년)<sup>5)</sup> 이미 고구려, 신라시대에 독자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었으며 중국의 무술과는 다른 것이었다.<sup>6)</sup> 고구려 유리왕 22년 이후(A.D. 3년) 장수왕 13년 이전(A.D. 427년)에 발생되었음은 초기의 국도였던 환도성(통구

지방에 있는 왕족의 고분인 무용총의 주실과 현실의 천정에 두 장사가 겨루는 자세의 그림이 증명하고 있다.<sup>7)</sup>

그리고 장수왕은 427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천도하여 지방 각처에 견당이란 사학기관을 설치하여 평민에게도 문무교육을 시켰으며, 소수림왕 때는 무력 강화를 위하여 태학에서 무술을 교육시켰다.<sup>8)</sup>

그 후 신라시대의 유물인 경주 석굴암의 금강역사탑에 부착된 막기 자세는 이 시대에 도수무예를 익히고 있었다는 것 즉 이미 이 시대에 태권도가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알려 주었고, 이것이 백제에서서는 「달맞이 짝싸움」의 행사로서 행하여지고 있었다.<sup>9)</sup> 태권도는 특히 신라시대의 국가적요청, 국민적지지에 힘입어 국가적인 체육으로 발전하였고 당시의 태권도가 지향한 인간상은 화랑도의 지표인 오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i) 임금을 섬기되 충성으로써 할 것.
- ii) 부모를 섬기되 효로써 할 것.
- iii) 벗을 사귀되 신의로써 할 것.
- iv) 집에 다닐아 물려서지 말 것.
- v) 살생할 때는 시기와 생물을 가릴 것.

태권도는 화랑도의 정신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종교적, 군사적 생활에 알맞은 조화적인 간성을 형성하는 고도한 무예와 체육이었을 것이다.<sup>10)</sup> 그 후 고려시대에 태권도(수박회)는 그 기술이 매우 발달되고 군사는 물론 일반민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으며 오병수박회라 하여 실제적 응용을 위주로 하는 집단겨루기(단체전)의 형식으로까지 발전하였다.<sup>11)</sup> 특히 예종 4년(1109년) 국자감(종합대학)에 무과를 설치하였는데 그 교과목중 무학의 과에 8명을

2) 문교부간 : 태권도. 1976. 8.30 p.11.

3) 대한태권도협회간 : 「품세편」 태권도 교본 1972, p. 14.

4) 문교부간 「제 1 장 갑오경장 이전의 체육」, 체육사, 1973, p. 31.

5)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명 간 : 「연혁」 태권도, 1981, p. 2.

6) 대산 배달 저 : 「조선의 권법」 100인의 공수, 동도서방, 1975, p. 31.

7)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명, 대한태권도협회 간 : 국기 태권도의 활성화 방안, 1981, p. 2.

8) 박해단 저 : 「태권도」 컬리판 세계백과대사전, 제 18권, 서문당, 1978, p. 601.

9) 이석호 호 : 「백제의 태권」 대한태권도협회간, 계간태권도, 1972년 제 16호, p. 39.

10) 문교부 간 : 「제 1 장 갑오경장 이전의 체육」 체육사 1973, p. 19.

두고<sup>12)</sup> 있었다는 사실도 수박회 즉 태권도가 성행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조 후기에 이르러서는 무풍을 친시킨 나머지 임진왜란, 병자호란등을 겪었으며, 이에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의미에서 선조 32년(1598년)에는 훈국량인 한교에 의하여 6기를 그리고 영조 35년(1759년)에 12기를 마지막으로 정조14년(1790년)에 6기를 추가하여 24기<sup>13)</sup>를 이덕무가 무예도보통지란 무예서로서 편찬하였는데 그 중 4권에 권법이란 이름으로 태권도의 동작이 실렸다. 한편 송도와 작지에서는 민속경기로 태권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유숙(1827~1873)의 태권도에는 당시의 태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sup>14)</sup> 이처럼 태권도는 우리의 국기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조중기이후 무를 경시하는 풍토는 무예수련을 쇠퇴의 길로 치닫게 하였고 발에란 치중하던 태권이 한·일합방이후 중국의 권법 또는 일본의 공수에서 사용하는 수기를 가미한 바기술적으로로는 발전된 것이 사실이나 불행히도 일본명칭 가라메(공수) 또는 당수, 권법이라고 그대로 호칭된 것은 약소민족의 비애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태권도(태권)가 가라메(공수)와 비슷한 점을 들어 가라메의 형을 보급시켜 태권도의 말살을 기도하였으나 사도제의 뜻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비전되어 왔으며 도산 안창호선생도 태권도(태권)를 민족무술로서 인정하고 이를 장려하였다 한다.<sup>15)</sup>

## 제 II 장 동남아 태권도의 현황

(심사 및 지도방법을 중심으로)

### 제 1 절 Malaysia

#### § 1. 사범연혁과 지도방법

동남아에 최초로 태권도가 발을 디게 된 곳은 말레이아 수도인 Kuala Lumpur로서 1963년 그 후 각주에 보급되었다. 말레이아 각주의 태권도 역사와 지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Perak주<sup>16)</sup>

최초 우림제사범(당시오단)이 1966년부터 1968년까지 Perak주 Ipoh시 Y.M.C.A.에서 태권도를 지도하였으며 현재 지관이 30여개 관원이 600여명 정도 있고 도장규격은 300평 정도이다.

1966~1968 우림제사범(상주)

1968~1969 최창근사범(상주)

1969~1973 김충찬사범(상주)

김사범이 Perak를 떠난 후 Persekutana Tae Kwon Do Association을 조직

1974~1978 김용호사범(비상주)

1978~현재 이규석사범(비상주)

지도방법 : 매일 1시간 30분

준비운동 10분, 기본동자 20분, 품세 20분,

세브 및 한복겨루기 10분, 겨루기 10분, 정리운동 5분, 휴식 15분

##### 2) netaSgor주<sup>17)</sup>

1967년~현재 진미경사범(상주 말레이아인)

현재 중앙도장으로 Y.M.C.A. 500명자리를 사용하고 4개 공작체육관과 18개 지관 40명의 유단자와 1,000여명의 수련자가 있다.

지도방법 : 주 3회 1회 1시간 30분 준비운동,

16) Malaysia Perak주 수석사범 Mr. Song Youn Chin 면담, 1980. 8월

17) Malaysia Selangor주 수석사범 Mr. Chin. Mee Kyong 면담, 1980. 8월.

11)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간 : 국기태권도의 활성화 방안, 1981, p. 2.

12) 문교부 간 : 전개서, p. 30.

13) 조은훈, 감수 송천강지저 : "어정무예도보통지, 도설중국무술사, 서림문화사, 1979, p. 78~79.

14)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간 : 국기태권도의 활성화 방안, 1981, p. 3.

15) 상동



손날, 발차기, 정권운동, 품세, 겨루기

### 3) Pahang주<sup>18)</sup>

1970년 윤영구사범(상주)

1971년~현재 Tont Ng(팔레이아인) 2개 도장  
5개 Club, 국민학교, 중학교를 지도하고 관원은  
300명 정도이다.

지도방법 : 주 3회 1회 1시간 30분 준비운동,  
기본동작, 품세, 세본 및 한본겨루기, 겨루기,  
정리운동.

### 4) Sabah주<sup>19)</sup>

1965~1967년 김창용사범(상주)

1967~1969년 강영호사범(상주)

1969~1973년 양우협사범(상주)

1971~1975년 박원하사범(상주)

1974~1976년 김용호사범(비상주)

1976~현재 이규석사범(비상주)

본관은 Sabah주 수도인 Kota Kinabalu에 있  
고 각지역에 14개 지관이 있으며 관원은 현재  
500여명 정도이다.

지도방법 : 주 3회 1회 1시간 30분 준비운동,  
기본동작, 품세, 세본 한 본겨루기, 겨루기, 정  
리운동.

### 5) Sarawak주<sup>20)</sup>

1972~1974년 박원하사범(상주)

1974~1977년 봉석근사범(상주)

1977~1978년 승강용사범(상주)

1979~현재 이규석사범(비상주)

1975년 Sibue 설립된 태권도협회에 의하여  
1979년 8월 Sarawak주에 태권도협회 설립 Sara  
wak주에는 수도 Kuching에 수련생이 75명 있고  
Sibue에는 150명 있다.

지도방법 : 주 3회 1회 1시간 30분 준비운동,  
기본동작, 품세, 세본 및 한본겨루기, 겨루기,  
정리운동

### 6) Wilayah주<sup>21)</sup>

18) Malaysia Phang주

19) Malaysia Sabah주 수석사범 Mr. Louis Thien  
면담, 1981. 6월.

20) Malaysia Sarawak주 태권도협회부회장 Dr. He  
nry, Y.K. Toh 면담, 1981. 6월

21) Malaysia Wilayah주 수석사범 Mr. C.K. Leow면  
담, 1981. 6월

1963년 Kuala Lumpur에 태권도가 최초로 소  
개 되었다.

1963~1972년 우재림, 최창근, 김종찬, 윤영  
구사범등이 지도.

1973~현재 Leow Koon Chin(팔레이아인)

1977년 Kuala Lumpur에 United Wilayah Tae  
Kwon Do Association을 설립 전국에 조직을 만  
들었다.

공공체육관이 3개, Sports Club이 5개 있고,  
11개의 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중앙  
도장의 넓이는 50평 정도이고 수련생은 800여명  
이다.

지도방법 : 주 3회 1회 2시간 30분 준비운동,  
기본동작, 자자기술훈련(① 세본겨루기 ②한본  
겨루기 ③ 겨루기(몸푸는 정도)), 품세, 정리운  
동

유단자에 대하여는월 1회 각주의 유단자를 모  
아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① 심판원교육
- ② 사범교육
- ③ 코오치교육
- ④ 유단자교육
- ⑤ 종합교육

팔레이아의 현 태권도 인구는 약 2만명 정도  
이다.

## §2. 심 사

### 1) Selangor

Selangor(Kuala Lumpur)에서의 심사방법을  
서 마래시아 전역에 다 적용하고 있으며 심사회  
수는 3개월에 한번이다. 이 곳의 심사방법은 다  
음과 같다.

무급 흰띠 4방향으로 혼합된 기본동작, 앞차기  
옆차기, 양쪽을 3회씩 찬다.

8급 노랑띠 팔괘 1장, 세본겨루기, 혼합발차기  
3회씩, 약속겨루기

7급 노랑띠 팔괘 2장, 세본겨루기 혼합발차기  
3회씩, 약속겨루기

6급 초록띠 팔괘 3장, 한본겨루기, 돌려차기  
와 뒤후려차기 3회씩

5급 초록띠 팔괘 4장, 한본겨루기, 돌려차기와

## 뒤후려차기 3회씩

4급 청머 팔괘 5장, 한본겨루기, 발차기  
 3급 청머 팔괘 6장, 한본겨루기, 겨루기 발차기  
 2급 자머 팔괘 7장 한본겨루기, 기겨루기 발차기  
 1급 자머 팔괘 8장 한본겨루기, 겨루기, 발차기, 지정품세로는 팔괘 5~6장. 그리고 2장의 송판을 돌려차기 및 열차기로 격파하고 정권으로 기와 6매를, 수도로 벽돌 1매를 격파한 후 겨루기 1회를 함

초단 후머 고려, 팔괘 8장, 한본겨루기, 겨루기, 사방축(4방향에 격파물을 설치하고 손과 발을 사용하여 신속히 이를 격파하는 방법) 송판 1매씩.

2단 후머 태백. 고려, 겨루기, 사방축, 격파,  
 Jumping Over 4 People

4명 넘어 차기

## 2) Sabah주

Sabah주와 Sarawak주는 동마태서아로서 두 주의 심사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공통된 부분은 한 곳만 쓰고 다른 점은 더 기록하겠다.

흰편(10급) 혼합기본동작, 발차기, 정권, 막기  
 9급 흰노랑머 팔괘 1장, 세본겨루기  
 8급 노랑머 팔괘 2장, 세본 및 1보겨루기  
 7급 노랑초록머 팔괘 2장, 한본겨루기, 한본 맞추어 겨루기  
 6급 초록머 팔괘 3장, 한본겨루기, 맞겨루기(1회 내지 2회)

5급 초록청머 팔괘 4장 맞겨루기 2회  
 4급 청머 팔괘 5장 맞겨루기 2회  
 3급 청갈색머 팔괘 6장, 맞겨루기 2회  
 2급 갈색머 팔괘 7장, 맞겨루기 2회, 모든 품세  
 1급 갈색 후머 고려, 금강, 한본겨루기, 세본 겨루기, 맞겨루기, 사방축(발과 손의 선택권은 피 심사자에 있음)

한편 Sarawak주는 Sabah주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보되 채점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세분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출  | 석 | 격  | 파 | 겨루기 | 품 | 세  | 태 | 도  | 계   |
|----|---|----|---|-----|---|----|---|----|-----|
| 40 |   | 15 |   | 15  |   | 15 |   | 15 | 100 |

그리고 격파는 기와 5~8매, 송판은 1방, 벽

돌방을 급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같은 국가안에서도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제 2 절 Singapore

Singapore에서는 1963년 Kuching에 있는 차코에서 태권도가 최초로 시작되었다. 그 후 Y.M.C.A.(Gayworld에 위치)에서 지도하게 되었으며 1974년 7월 26일에는 Singapore태권도협회가 발족되었다. 최초의 수련생은 16명이었다.

1963~1965년 김복탄사범(상주)

1965~1968년 이기하사범(상주)

1968~1970년 이병무사범(상주)

1969~1970년 이준재사범(상주)

1970~1971년 한차교사범(상주)

1974~1978년 김용호사범(비상주)

1978~현재 이규석사범(비상주)

현재는 지관이 30여개에 수련생이 약 1,800명 정도 있다.

지도방법 : 주 3회 1회 1시간 30분 준비운동(태권도기본동작), 품세, 한본 및 세본겨루기, 겨루기, 정리운동.

심사 : 심사는 년 4회 실시하고 있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9급 흰머 기본동작, 연속앞차기 3회씩(左, 右)

8급 노랑머 팔괘 1장 세본겨루기, 발기술

7급 노랑머 팔괘 2장 세본겨루기, 손·발기술

6급 초록머 팔괘 3장 한본겨루기와 1회의 맞겨루기(1회는 1분)

5급 초록머 팔괘 4장 한본겨루기와 1회의 맞겨루기

4급 파랑머 팔괘 5장 한본겨루기와 1회의 맞겨루기

3급 파랑머 팔괘 6장 한본겨루기와 1회의 맞겨루기

2급 빨강머 팔괘 7장 한본겨루기와 2회의 맞겨루기

1급 팔괘더 팔괘 8장 일보거루기와 3회전의 연속자유겨루기, 머서 왼쪽 또는 오른쪽 발로 송판 격파, 지정품세(팔괘 1장~팔괘 7장 사이)

초단 흑띠 고려 지정품세, 일보거루기와 4회전의 연속자유겨루기 및 삼각겨루기, 머서 발로 장애물 너머 송판격파.

2품 흑팔괘더 고려, 팔괘 1장에서 8장 사이, 일보거루기와 4회전의 연속자유겨루기 및 삼각겨루기, 머서 장애물 너머 송판 격파(6歲~15歲 미만의 단을 품으로 표시함)

2단 흑띠 금강, 3개 지정품세, 일보거루기와 2회의 연속겨루기(1회는 2:1의 자유겨루기, 1회는 삼각겨루기), 격파(머서 발로 장애물너머 송판격파)

### 第三節 Hong Kong<sup>23)</sup>

홍콩은 중공땅에 소재한 영연방의 도시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국가는 아니나 위치로나 인구구성으로나 동양인이 많이 거주하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취급하였다.

1966년 윤영구·최광조·김복만사범(상주)

1967년 한차교·송강용·봉석근사범(상주)

1967~1976년말 송강용사범(상주)

1971~현재 장성봉사범(상주)

1970년 남태희·이종오·정소영사범(상주)

1974년~현재 천제영사범(상주)

1974년경 이평팔사범(상주)

1976~1980년 신재균사범(상주)

1976년~현재 박재영사범(상주)

현재 상주하고 있는 사범들의 도장과 수련생 수는 다음과 같다.

| 사범  | 장성봉    | 신재균    | 천제영  | 박재영    |
|-----|--------|--------|------|--------|
| 도장수 | 11     | 7~8    | 2    | 30     |
| 관원수 | 1,000명 | 1,000명 | 100명 | 2,500명 |

홍콩에는 두개의 태권도 조직이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Hong Kong Tae Kwon Do Ass:김복만  
Hong Kong Tae Kwon Do Union:이종원, 장용무, 천제영, 신재균, 장성봉, 박재영  
지도방법: 주 3회 1회 1시간 30분, 기본동작, 품세, 한본 및 세본겨루기, 뛰기(공중) 정리운동.

심사:

8급 흰띠 팔괘 1장, 세본겨루기, 기본동작, 겨루기 1회(1회는 1분 30초)

7급 노랑초록띠 팔괘 2장, 세본겨루기, 기본동작, 겨루기 1회

6급 초록띠 팔괘 3장, 한본겨루기, 깨루기 1회

5급 초록파랑띠 팔괘 4장, 한본겨루기, 겨루기 1회, 1Inch송판 1매를 열차기로 격파하기(왼쪽이나 오른쪽 한 쪽만으로)

4급 파랑띠 팔괘 5장, 한본겨루기, 겨루기 2회, 1Inch송판 1매를 뛰어 앞차기로 격파

3급 파랑갈색띠 팔괘 6장, 한본겨루기, 겨루기 2회, 1Inch송판 1매를 뛰돌아 앞차기로 격파

2급 갈색띠 팔괘 7장, 한본겨루기, 겨루기 2회, 1Inch송판 1매를 뒤후려차기로 격파, 1Inch 송판 2매를 5명용 엷드리게 하여 그 위로 뛰어넘어 격파하기

1급 갈색흑띠 팔괘 8장, 한본겨루기, 겨루기 2회, 1Inch 송판 2매를 제자리 열차기로 격파, 수도로 벽돌 20장 격파, 정권으로 기와 20장 격파, 이단앞차기로 송판 1매 격파, 6명이 엷드린 위로 뛰어넘어 송판 1매를 발로 격파하기, 한번 뛰어 공중에서 두번 발차기.

### 第四節 Thailand<sup>24)</sup>

태국은 다른 나라에 한번도 支配를 받지 않았으며 국민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특히 국기인 태극복싱이 있어 줄처럼 태권도가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었으나 월남전을 계기로 많은 미군병사가 태국에 주둔하고 있어 그때 한국의 태권도사범이 그곳에 최초로 파견되었다. 태국에 태권도사범이 파견된 것은 다음과 같다.

23) Hong Kong 태권도사범 박재영씨 면담, 1981. 6월

24) Thailand 태권도수석사범 송기영씨 면담 1981. 6월



1966년 6명 지도관—배영규·박동근 송무관—  
박병운·허문선 창무관—김명수의 1명

1968년 지도관—김진성·안석준·김승곤 청도  
관—김진우·송기영(72.12.4)

1973년 오도관—남성복·정장근 무덕관(당수  
도) 송찬희

1976년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고 태권도학  
교를 설립

1977년 송기영사범을 제외한 모든 한국사범이  
태국을 떠남

1977년 4월 태국태권도협회 조직

1977년 11월 문교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음

1978년 3월 태국태권도협회 창설

1979년 책마이대학교에 태권도부 설치지도방  
법: 주 3회 1회 1시간 30분, 기본동작, 품세,  
한본 및 세본겨루기, 겨루기, 정리운동.

심사: 3개월에 1회 실시

무급 흰·기본동작, 막기, 지르기, 차기, 앞차  
기, 돌려차기(4회씩)

10급 노랑띠 태극 1장, 세본겨루기 5번, 겨루기  
(2분) 높이차기, 앞차기

9급 노랑띠 태극 2장, 세본겨루기 5번, 겨루기  
(2분), 높이차기(정확성)

8급 초록띠 태극 3장, 두본겨루기 5번, 겨루기  
두발 모아 열차기

7급 초록띠 태극 4장, 두본겨루기 5번, 겨루기  
두발 모아 열차기(정확성)

6급 파랑띠 태극 5장, 한본겨루기 5번, 겨루기  
뒤돌아 열차기

5급 파랑띠 태극 6장, 한본겨루기 5번, 겨루기  
뒤면서 뒤돌아 열차기

4급 갈색띠 태극 7장, 한본겨루기 5번, 겨루기  
뒤후려차기

3급 갈색띠 태극 8장, 한본겨루기 5번, 겨루기  
뒤면서 뒤후려차기

2급 빨강띠 팔괘 7장, 한본겨루기 5번, 겨루기  
가위차기

1급 빨강띠 팔괘 8장, 한본겨루기 5번, 겨루기  
일자차기

1급 흑띠 모두 또는 선택 세본·두본·한본겨루  
기, 벽돌 6매 격파, 송판 7분짜리 6매격파

## 第五節 Philippine<sup>25)</sup>

필리핀은 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이  
고 이 나라의 고유 무술인 Arnis가 있으나 이보  
다는 공수도가 일반에게 많이 보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태권도가 무도로서 자리를 차지  
하고 있으므로 상류사회의 호신술로서, 그리고  
건강유지의 방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1970년 8월 15일~1971년 2월말 김복만사범  
(상주)

1972~1979년 박용만사범(상주)

1976~현재 홍성천사범(상주)

1973년 5월 25일~27일 제 1회 세계태권도대  
회 참가(서울개회)

1974년 10월 18~20일 제 1회 아세아태권도대  
회 참가, 동메달 1개 획득

1975년 10월 28~30일 제 2회 세계태권도대회  
참가, 동메달 1개 획득

1976년 10월 16~17일 제 2회 아세아태권도대  
회 참가, 은메달 2, 동메달 1개로 3위 입상

1978년 6월 30일~7월 2일 Pre-World Game초  
청태권도대회에서 감투상을 받고 8위 입상

1979년 5월 25일 필리핀 국내 제 1회태권도대  
회를 Rizal Memorial체육관에서 개최

1980년 7월 12일 필리핀 국내 제 2회태권도대  
회를 1회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

현재 필리핀에는 11개 도장이 있으며, 500여  
명의 유단자와 3,000여명의 수련생이 있다.

지도방법: 주 3회 1회 1시간 30분, 준비운동,  
기본동작, 품세, 한본 및 세본겨루기, 겨루기,  
정리운동.

심사:

무급 흰띠 품세 2가지, 세본겨루기, 발차기 5가  
지(원발·오른발), 기본동작, 이론(태권도란 무엇  
인가?, 각 동작의 명칭)

8급 노랑띠 및

7급 노랑띠 팔괘, 태극품세, 세본겨루기, 겨루

기 1회(1회는 2분), 발차기 4가지, 열차기, 뛰돌아 열차기, 돌려차기, 뛰며 밖에서 안으로 뛰후려차기 또는 뛰며 안에서 밖으로 뛰후려차기 6급 초록띠 및

5급 초록띠 팔괘, 세본겨루기, 겨루기 2회, 발차기 4가지, 이단앞차기, 끝매 열차기, 후려차기 내려찍기

4급 빨강띠 및

3급 빨강띠 품새, 한본겨루기, 겨루기 2~3회, 발차기 4가지, 중단연속 2회 돌려차기, 중단연속 2회 열차기, 중단연속 2회 이단앞차기, 중단연속 2회 뛰후려차기

2급 갈색띠 및

1급 갈색띠 품새, 한본겨루기, 겨루기(2급—2회 1급—3회), 호구겨루기, 발차기(무급~3급까지 배운 모든 것), 굵은 기와 1매와 송판 1매를 손으로 격파

초단 흑띠 품새, 한본겨루기, 심판규정, 2:1겨루기, 호구겨루기, 격파

## 第Ⅲ章 結 論

태권도는 고구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로서 최근에는 그 무도적인 면이 많이 퇴색되는 반면 스포츠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월남전이래 한국고유의 무술로서보다는 세계적인 무술이며 스포츠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다.

태권도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심사방법은 6·25사변이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이전 조상들이 수련중심사를 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6·25지후에도 심사가 행하여졌으나 태권도 수련생들이 별로 많지 않아 판리가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태권도 협회가 창설되고 태권도 불이 일어났 뒤 태권도 인구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급작스런 증가

가지고 옴으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유급자가 유단자로 되기 위하여는 많은 노령과 시간이 필요하였고 또한 상, 하서순열이 엄격하였으나 최근 국내에서는 유급자가 유급자로 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하여 운동시간 및 운동량이 너무 적고 급이나 단을 부여하는 행위가 상업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동남아 각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심사제도에서 느낀 것은 급이나 단을 얻기 위하여는 각고의 노력을 주주하여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계속되면 국내의 태권도 수련생의 평균실력이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저조한 경향을 보일 요소마저 보인다.

각국의 유급자, 유단자 간에 실력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피심사자의 성별, 연령별, 체중별에 따른 순발력, 스피드, 유연성, 지구력, 근력등의 요소와 기술에 대하여 통계적이고 객관타당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것이다. 한편 동남아 제국 일반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도회수는 대체적으로 주 3회, 1회 1시간 30분으로 국내의 일반도장에 비하여 실시회수가 적은 반면 1회의 운동량이 많은 편이다.

동남아각국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도장에서 준비운동,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정리운동등의 순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와 유사한 방법이며 대개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여기에 호신술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겨루기에 있어서 주로 삼보 및 일보겨루기를 행하는 데 이때 사용되는 팔은 오른 쪽이 대부분이어서 왼쪽에 대한 훈련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태권도는 건강유지 및 호신술로서 각계각층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도도 개발하기에 따라 발전적 요소가 많다.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이의 과학화 및 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를 합리적으로 보급, 실시하는 것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 태권도복의 역사적 고찰

국기원 연구분과위원 이 창 구  
강동중학교 교사

### 1. 서 론

Sports는 인류의 진화와 함께 발달하여 인간 생활과 영구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을 더우기 문화가 진보한 나라일수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근래에 이르러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세계 각국이 서로 Sports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88년 올림픽과 '86년 아세안 게임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급 성장한 국력과 함께 태권도가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태권도인은 태권도의 이론 및 기술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태권도 역사의 일환으로 태권도 복장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 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복이 필요하였으며,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직업이 세분되고 전문화되어 의복 역시 다양하게 되었다.

오늘날 평상시 의복은 한복을 제외하곤 거의가 양복으로 바뀌게 되었으나 우리고유의 태권도복만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세계 각국에 계승시키고 있어 본 연구에 임하였다.

### 2. 역사적 배경

우리민족 고유한 태권도복은 상고시대 복장을 기원으로 이어오며 연구 보완된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태권도복으로 전통과 실용성을 자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 복장사는 상고시대의 의복으로 시작하여 삼국시대, 고려, 이조를 거쳐 오늘의 복장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태권도복은 우리 전통적인 의상임을 사료를 통하여 고증하여 보겠다.

상고시대 「속진」, 「옥저」 등지에서 패지기를 몸에 발라 의복으로 대응하였던 것은 극단의 예이고 제주도와 함경도에 계양의 두루마기가 최초의 우리나라 의복으로 김동욱의 「한국 복장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의복이 시작되었으며 태권도복의 기원은 상고복 두루마기「포」에서 연유되어 오늘날 태권도복으로 변천되어 왔음을 고증한다.

상고의 포는 무릎을 조금 내려간 오늘의 오우바와 비슷한 것으로 「삼국지,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산조」등에 보이며, 이여성의 「조선 복장고」에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두루마기「포」가 우리나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것을 짧게 하면 저고리「유」가 되고 짧게 하거나 바지「고」를 입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변천하여 포가 짧아짐에 따라 오늘에 태권도복 상의와 비슷 하였고 이러한 저고리「단의」는 옷의 소매「수」에 단을 붙이고 유에 대를 찍는 것이 당시의 풍속으로 단의 길이는 최소한 요이하까지 요구 되었다.

저고리「유」대는 완전히 상체를 포피 장속하고 방한과 行動에 지극히 편리한 형태였으며 역사의 층의(속옷)나 노동의에도 있었음으로 봐 상고시대부터 우리 고유의 저고리에는 소매끝과 깃에 단이 있었던 것과 오늘날 저고리에는 동정과 색등을 다는 것도 그때부터 연유된 것으로



봐서 태권도복의 상의에는 목둘레, 깃, 소매끝에 흑색 단을 두르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민속복장임을 실증케 한다.

태권도 중주국으로 민족 고유의복을 이어 받은 것은 당연한 논리로 보아진다.

바지「교」는 두루막「포」가 짧아 짐에 따라 바지가 필요했으며 아래 발목에 댄임을 잡아 매어 추위를 견디며 간편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되었다.

본래 태권도의 형태는 저고리와 같이 앞을 여며 입는 것이 동서를 막론하고 상통 되었던 것을 경기상상의 편의를 감안하고 여자수련생의 가슴노출을 고려하여 현재의 도복으로 개선된 것이다.

바지는 경기의 활동성을 감안하여 발목에 댄임만 없애고 고유의 형태를 그대로 이어온 것이다.

머는 저고리의 깃과 함께 허리에 요대를 띠고 있었으며 고구려 벽화나 신라의 고분에서는 군기복의 계급에 따라 색깔의 변화가 있는 요대를 띠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와 흑, 적, 청, 노랑, 백색의 띠를 매게 된 것으로 유래된다.

태권도복의 색상이 흰것은 삼국시대 복색의 규제가 있었지만 신라 흥덕왕때부터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평민은 백색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유래되어 오늘날 흰옷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백의민족이라 불리워진 것으로 보아지며 흑백의 조화는 고려기 면류관 평천관에 윗쪽은 흑이고 아래쪽은 적이었다.

이때부터 흑색은 적색의 상층에 해당되고 흑색과 적색은 백색에 배색하면 대조적으로 아름다움을 주면서 잘 조화되어 백색도복에 흑색 선을 두르고 유단자는 흑색 띠를 두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 3. 색상의 이론적 배경

자연물이 자연배경으로부터 대상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색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과 구별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색을 이용한다.

디자인에 있어서 선을 이지적 자질이라고 한다면 색은 감정적 자질이라고 하겠다.

태권도복에 있어서 선수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협동 정신을 앙양시키는 것은 물론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착의자의 아름다움을 더 한층 높여주고 제삼자로 하여금 상쾌한 가시적 효과를 이루어야 하겠다.

모든 색채는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들의 기분이나 기질 및 행동에 좌우한다.

운동선수와 같이 햇볕에 검게 탄 건강한 피부와 백색 Uniform은 잘 조화된다.

백색은 순결, 신성, 청초의 심볼로서 타협을 용서하지 않는 범하기 어려운 기품이 있다.

반면에 어떠한 색에도 물들기 쉬운 불안정한 성격이 있으나 태권도복에 있어서는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심신 수련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며 기술단련을 통해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태권도 정의에는 어떠한 유채색 보다 고귀하고 청초한 백색이 무난 할 것 같다.

백색은 밝고 분명한 색과 사용하면 눈에 잘 띄이고 흑색, 빨강, 파랑, 노랑 등과 배색하면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주면서 잘 조화되어 태권도복에서 띠의 색깔로 쓰고 있는 것이다.

띠의 색상은 역사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신라의 국기복, 고려기 면류관, 이조 궁중의 상에서 색상의上下가 정해져 혹은 「엄격, 공포비밀등」, 적은 「정열, 용기, 위험, 동정등」, 청 「이지적, 냉담, 신비, 상패등」, 노랑은 「행복, 영광, 패왕, 유쾌」 등으로 백색과 가장 가깝고 연한 색으로 풀이된다.

도복색깔과 띠의 가장 아래 계급인 백색은 젊은이들의 색이지만 세련되고 성숙한 사람에게도 멋있게 어울리며 모든 연령층에서 입을수 있는 색으로 태권도복의 색상과 띠의 색깔은 전통적이며 현대인의 색상으로 높이 평가된다.

### 4. 제 언

복장은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며 그중 태권도복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권도복은 고유한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기호에 부합되고 경기에 부적합이 없는한 개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만약 개정이 불가피하면 공청회등을 통하여 과감히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복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용어나 경기규칙 역시 마찬가지며 그동안 자

주 바뀐 것은 반성과 함께 자각을 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훌륭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있는 태권도의 우수성과 기술을 '88년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92년 올림픽에는 정규종목 채택을 위하여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알 림〉

### 태권도지 투고 안내

—홍 보 과—

#### 1. 독자기고(국내외)

가. 소설(단편) : 200자 원고지 60매 이내

나. 시 : " 10매 "

다. 콩트 : " 20매 "

라. 수필 : 수필기, 지도기, 미담, 자기고장의 자랑 30매 이내

마. 연구논문 : 원고지 80매 내외의 태권도연구 논문

#### 2. 사·도협회 및 학교소식(국내외)

가. 시·도협회

1) 행사소식

2) 인사소식

3) 성공사례

4) 기타 자랑거리

나. 학교소식

태권도를 교기(校技)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관련자료(연혁, 소개글, 사진 등)를 보내 주시면 학교명예를 빛낼 수 있습니다.

※ 시·도협회에서는 행정공문 이외의 소식은 전화 또는 서신으로 6가원칙에 입각해서 연락주십시오.  
최우선으로 취급하겠습니다.

#### 3. 지상 사진전(국내외)

태권도와 관련된 사진을 보내주시면 솜씨를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 4. 보낼 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홍보과

#### 5.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교료와 책을 보내드립니다.

## 제 33기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徐 鉉 燮  
(空軍跆拳道教官)

5월의 훈풍이 온 대지에 가득할 무렵, 우리 33기들은 태권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감과 넘치는 젊음을 과시하며 철쭉이 활짝핀 태권도의 전당 국기원에 다시 모였다.

그동안 몇차례나 기회를 놓쳤던 나로서는 이번 교육이 누구보다 더 값지고 기대에 찬 교육이었으며 우리 수료생 모두에게도 상당한 의의와 보람을 가져왔으리라 믿는다.

마침 흥겹음이 아닌 여(女)지도자님들이 2명이나 임소하여 교육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고, 대다수가 20대 후반의 젊은층들이어서 태권도의 앞날에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는 것이 이번 33기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교육을 돌이켜 보면 태권도 용어, 태권도사(跆拳道史), 운동역학, 응급처치, 경기규정, 심판교육, 체육원리, 인간관계, 국가안보, 품세 등 꽤 다양한 교과과목과 특별히, 태권도경험이 많은 선배 강사님들의 열의에 찬 교육이 태권도 지도자로서 심신의 수련 및 후배 지도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이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 시간마다 보살펴 주신 부원장님과 자 분과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싶다.

다만 앞으로 태권도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국기(國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 나가기 위하여는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도자 교육에 있어 끊임없는 연구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교육기간의 연장이라던가 교과과정의 편성에 대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꽤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교육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번 교육을 통하여 느낀 몇가지 의견을 여러 지도자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지도자 교육은 제목 그대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 지도자는 무도인입과 동시에 어느면으로든 교육자와 같은 위치이며, 특히 일선에서 직접 지도하는 사범의 경우는 체육교사와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므로 태권도 사범은 무술면에서도 물론 훌륭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도 방법이나 모든 언행(言行)에 있어서 수련생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교육은 우리 태권도인에게 특히 태권도 경력이 많은 지도자급으로서는 유일한 교육 기회이므로 후배 수련생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휘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내가 알고있는 어떤 생산업체에서는 그 회사 제품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Sale)에 관계되는 간부들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연간 몇 차례씩 실시하는데 과거와 같이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이론교육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직접 판매활동을 위한 그룹(Group)별 상호 토론이나, 의견발표 판매실습등 판매와 관계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기업 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 지도자교육의 경우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자기의 의도를 여러사람 앞에서 원만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의사전달능력(意思傳達能力) 및 연설능력의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이라든가, 태권도의 지휘능력 배양을 위한 이상적인 지휘법 실습, 그리고 태권도 지도경험상의 문제점 혹은 자자가 느끼고 있는 갖가지 의문점에 대한 상호 토론등 당장 교육수료후에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부여해 주는것도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 한다.

둘째, 지도자교육은 지휘기술 및 지도절차에 대하여 통일할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수련 도장마다 또는 사범 개개인의 경력에 따라 지도방법 및 수련절차가 서로 다르고 동작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런 기회에 품세통일은 물론이고 준비운동에서부터 기본동작 겨루기 격파에 이르기 까지 이상적인 수련절차 및 통일된 지도법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지도자들로 하여금 완전히 숙달 응용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교육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셋째, 이론 및 교양과목은 가능한한 교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몇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일 경우 전과목에 대한 교육내용을 한권의 책자로 인쇄 혹은 동사하여 보다 선명하고 정돈된 교재를 미리 나누어 줌으로서 교육내용의 이해를 쉽

고 빠르게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절약된 이론 시간은 토론 세미나등 실습교육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교육 완료후는 질문지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것도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피 교육생들이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태권도경험이 많은 지도자들이므로 수료직전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결과에 대한 각자의 여론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용 가능한 의견을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가 있고 또 지도자 교육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정표(里程碑)가 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피 교육생 상호간 소개 또는 의견 교환의 시간이 필요할것 같다.

서로 자기소개를 함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비록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신뢰하는 가운데 소속감 내지는 협동심이 생길 것이며 좋은 교육분위기가 형성되어 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지도자교육에 대하여 몇가지 개인적인 소견을 적어 보았지만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제반 여건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선배님들께서도 이미 좋은 방안들을 많이 검토하고 계시겠기에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서나 태권도를 아끼는 마음에서이니 이해 있으시기 바란다.

부디 태권도 지도자교육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인간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다.



# 돈주고 있습니다

金 健 中

「어보 필 꾸물대요 빨리 나오지 않구.」

이미 문밖을 나선 마누라의 채근에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문을 나선 맹두석씨는 하늘을 힐끗 쳐다봤다.

어느 때와 별반 다름없이 꽃샘바람이 스치는 그런 봄날씨였다.

하나 그는 계절의 감각을 잊은 듯, 봄날씨 쳐 놓고는 너무 화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기실 화창한 것은 봄날씨가 아니라 뭉개구름처럼 마냥 피어오른 그의 가슴속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한지 10년이 되도록 그 허구헌날 먹구 살기 바빠 나돌아치다보니 오늘처럼 부부동반하여 외출하긴 처음이기 때문이라.....

물론, 자질구레한 외출이야 왜 없었을까 만은 지금 딸 순덕이를 앞세우고 그것도 웅변대회인가 말쑥대회인가하는 대회에 참석하니 그 기분이란 실로 그로 하여금 어찌 마음 한켠에서 해맑은 감정의 물줄기를 배어 나오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쨌건 거무티티하고 거미줄처럼 엉긴 잔주름으로 인해 눈상 어둡잖으면 절망스러워 보이는 맹두석씨의 표정이 오늘따라 다림질한 군복처럼 어색하게 퍼져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순덕이가 제여미 손을 잡고 웅변대회인가 뭔가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후부터 나가기만 하면 큼직한 상장과 변적거리는 은컵이나 트로피를 안고 들어왔다.

그런 때마다 맹두석씨는 딸 순덕이 굉장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되었고 아울러 그애의 앞날이 신작로처럼 흰히 트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었다.

아무리 머리를 조아려봐도 순덕이와 자신과는 너무도 판이했다.

자신은 40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그 누구에게 상장이나 그 비슷한 걸 받아본 사실도 없려니와 또한 말쑥대회인가 뭔가하는 것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 그였다.

기껏 참석해 봤댔자 어린시절 운동회라는 명목하에 공책이나 연필따위를 받기 위해 땀뻑질했던 것이고 구경해 봤댔자 동네 공터에서 벌어진 씨름판에서 어른들 가랭이 틈새로 목을 빼고 지켜 보았던 추억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대회에서도 지금 순덕이가 타은 상장과 트로피와는 어렵도 없는 시시한 일용 잡화들 뿐이었다.

순덕을 앞세우고 대회장으로 향하는 맹두석씨의 가슴속에는 전설같은 추억이 아롱지며 밋밋하게 흐르고 있었다.

하여 그는 순덕이가 상당히 대견스럽기도 했지만 위대하게도 생각되었다.

「어보! 다 왔어요. 저 푸랑카드를 봐요.」

마누라의 소리에 맹두석씨는 가볍게 옮기던 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꿈벅이며 현수막을 쳐다봤다.

—××기별 W군대 남녀 웅변대회—

라는 글씨가 맹두석씨의 시야에 들어왔다. 순

간, 그는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아무래도 순덕의 재능이 의심스러웠다.

그토록 수베키처럼 평소에도 도통 말이 없는 순덕이가 어찌 저토록 거창한 말씀대회에서 상을 타는지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다.

아롱든, 맹두석씨는 참으로 이상한 조화라고 세삼 깨우치며 머리를 가우뚱 했다.

「아 가족이나 시간이 없는데 뭘 पू물 거려요」

현수막을 감회길게 바라보며 장승처럼 우뚝 서있는 맹두석씨를 향해 마누라가 겹싸게 쏘아 부치자

「하! 저 글씨하나 잘 잔겼는데, 근데 웅변대회가 뭐야 말씀대회지.」

「그게 그거야요.」

핑하니 쏘아 부치며 앞서가는 마누라 뒤를 따라 잠시 후 읍내 문화회관을 빌린 대회장에 도착했다.

정말 거창했다.

이디 관중석은 가득 채워졌고 무대에는 휘황찬란한 각종 은컵과 트로피 그리고 우승기 너댓개가 질펀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뿐이라 그 뒤편 근사하게 생긴 사람들이 열댓명씩이나 엄숙하게 앉아 있질 않는다.

맹두석씨는 펜스레 주눅이 들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군침을 삼키며 입맛을 찻찻 다시고 있었다.

잠시후.

국민의례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내 근사하게 생겨먹은 사람이 무대 오른쪽에서 마이크를 잡더니

「에..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기별 W군내 남녀 웅변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회는 왕년에 있었던 대회와는 그 의미도 다를 뿐더러 연사 여러분들의 질적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해서 이 지역사회 유지 여러분은 물론 각계의 인사들께서도 공사간 다 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물론 잠시후 내빈 여러분을 한분 한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 아롱든 본대회가 성황리에 개최하게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에 그럼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회장을 맡아주시 한공달 선생님, 이분은 전국

고물상협회 W지부장이시고 읍내에서 금은방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동시에 허여멀정게 생기고 기쁨기가 줄줄 흘러 내리는 풍채 좋은 사람이 우뚝 일어서며 관중석을 향해 두손을 치켜 올리며 인사를 했다.

「다음은 부대회장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분은 미국 도매상을 경영하시는 추정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저희 W읍내에서 다년간 읍서기로 재직하셨고 얼마전 정년퇴직하신 안보네씨입니다.」

부대회장 소개말에 일어난 두사람은 맹두석씨도 평소에도 안면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공연히 흡족했다. 하지만 뭘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오늘 이자리에서 바라보니 영 입맛이 개운치 않았다.

그럼, 마지막으로 명에 대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기 전에, 이분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이지역 출신 아니 여러분이 뽑아주신 국회의원 ××× 의원님입니다. 헌배 금일 필히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국사에 바쁘시다 보니 이렇게 불참하게 된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대신 여기 보내오신 축전을 낭독해 올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조그만 카드를 손에 들고 뭐라고 간단히 읽어 주더니 다시 마이크를 다잡았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내빈 여러분의 소개는 생략하고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위원장에 웅변중앙협회 지도위원이신 K선생님. 다음 심사위원에 W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신 Y선생님. 그리고 본 웅변협회 W지부 교육원장이신 J원장님 이상 세분이서 심사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물론 엄격하고 공정한 판정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죽음 메일처럼 막힘없이 술술 지껄이는 사회자의 말에 뺨을 붉고 지켜보던 맹두석씨는 내심 걱정스러웠다.

저토록 거창한 이번 대회에서 과연 순덕이가 무슨 재주로 상장과 트로피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못내 불안스러웠다. 그러면 그럴수록 연사석에 대기하고 있는 순덕이가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보이기도 했다.

코흘리게 유년부의 순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

었다.

헌데 맹두석씨는 아무리 말씀대회라고는 하지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찌 유치원생이 코흘리며 젖먹기도 바쁜데도 그리도 유창한 말을 구사할 수 있으며 더우기 자신도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그다지도 꺼리낌없이 해재킬 수 있는나 하는 점이다.

몇번이고 되색여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등부의 순서가 되고 순덕이가 다음번 차례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때.

옆자리 마누라에게 미끈하게 생긴 녀석이 다가왔고, 마누라는 반갑게 인사를 했다, 하더니 껌속말을 몇마더 던지고 사라지지 않는가.

「왜 그래? 누구데?」

맹두석씨는 눈을 슬며시며 마누라에게 반사적으로 물었다.

「저 사람이 우리 순덕이 말씀선생이야요. 저 다르게 아니고 깜빡 있어 먹었어요.」

「뭘 있어 먹었다는 게야.」

「순덕이 출전비, 원고료, 지난달 수강료 말예요. 그리고…」

「그리고 뭐야?」

「당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게 어딴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맹두석씨의 넓적다리를 꼬집으며 마누라는 나중히 말했다.

「다음이 순덕이 차례인데 심사위원들 몰라 값이라도 더밀어야죠.」

「몰라값? 여기 있어 천원.」

「어휴 이래서 내가 답답한거라구요.」

「이런 센장' 몰라값이야 천원이면 네병인데.」

「참 기가막혀!」

마누라는 씩하니 후딱 자리를 뜨더니 사람 틈바구니를 헤치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사라졌다.

맹두석씨는 마누라의 행동거지가 흡사 신들린 사람이나 아님 미친사람처럼 보였다. 생각 같아서는 소리라도 버럭지르고 싶었지만 그 순간 순덕이가 단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꿀꺽 참아 버렸다.

딸 순덕이는 말하나 머뭇지 않고 조리있게 무슨 말인가를 열심히 지껄이고 있었다. 물론 가

끔씩 다른 애들처럼 깃대를 세우며 외치기도 했다.

무조건 대견스럽게 혹은 말하는 도중 멈추거나 앓나 하고 손에 땀을 쥐고 맹두석씨는 조마조마하며 열심히 순덕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장내에서 우뢰같은 박수소리와 동시에 순덕이가 단상을 물러갔다.

그 즈음해서 씩하니 나갔던 마누라가 맹두석씨 곁으로 돌아왔다.

「어메 갔다 왔어? 순덕이 떠드는 거 보지 안구.」

「다 봤어요 봤어.」

「그럼 가까워서 볼라구 나갔구먼.」

「…밀린 돈내고 왔수다.」

열눈으로 마누라의 표정을 보니 입언저리가 한참은 부어올라 있었다.

「…근데 언제 끝나지?」

「………」

맹두석씨의 물음에 대꾸도 않는 마누라였다.

그때. 다시도 사회자의 말이 귓전에 와 닿았다.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차례부터는 연사여러분이 준비하신 원고중에서 크라이막스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점수에는 아무영향이 없습니다.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여보 크라이막스가 뭐야?」

「뭣길 뭐예요 제일 잘하는데죠.」

「제일 잘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애들이?」

「알아요 알아.」

「………」

마누라의 서술에 꿀먹은 벼어리처럼 맹두석씨는 입을 딱 다물긴 했지만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아리송 하기만 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순덕이가 다음 사람까지는 크라이막스가 뭔가만 한게 아니고 전부터 했으니 마음이 턱 놓이긴 했다.

오후 서너시경이 되자 얼추이 대회가 끝났다.

서론 세번째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연사가 단상에 올랐다.

처음과 달리 점점 장내가 혼잡스럽고 시끄럽고 연사의 말씀(?)이 무슨뜻인지 분간 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어쨌거나 예정대로 대회가 끝나고 성적발표와 시상식에 들어갔다.

아울러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맹두석씨도 읊조리는 마음으로 사회자가 발표하는 성적을 계속 경청하며 단상앞에 진열된 상품(트로피 은컵)을 망연하게 응시하며(과연 저 녀석이 무얼 탈까?)하는 기대감에 가슴을 출렁이고 있었다.

헌데 묘한 일이었다.

1등 2등 3등... 그런 순서가 아니라 최우수상이 서너명씩 되고 우수상이 근 삼십여명이나 호명되었다. 아니 그 보다는 상 받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자 맹두석씨는 당체 수긍되질 않았다. 순간,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젢이 당기는 갈증을 억제하고 있었다.

(아무리 조금전에 심사위원으로부터 강령인가 소감인가를 말할 때 연사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수준인가 차원인가가 높게 잡혔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이젠 뭔가 잘못된 건데...)라고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니 기우리고 애꿎은 담배연기만을 풀썩풀썩 날리고 있었다.

「여보 된 생각을 하세요. 저길봐요. 우리 순덕이가 지금 상 받으려 나가잖아요.」

...아 순덕이만 받남. 나온 사람은 똥땅 받아본데.」

「다 잘하니 그럴 수도 있는거 아냐.」

「그럼 그게 무슨 시합이야.」

「...그러니 이젠 말씀대회라고 했잖우.」

「암만 그렇기로서니 서른 세명이 출전해서 서른세명 모두가 상을 탄단말야? 이 여편네가 날 달달봉사로 아나, 내 처음부터 도로핀가 은컵인가를 전부 세어보니 서른세개드란 말야. 그리고 출전한 애들두 서른 세명이구. 아니 그럼 처음부터 다 잘할줄 알고 그렇게 준비했단 말야?」

「그건 난두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순덕이가 상타면 됐지 웬 말이 그리 많수... 어유 당신하곤 답답해서 말 못하겠수다.」

「답답한건 나야. 제기랄 말하기 싫음 판두라지.」

맹두석씨는 태우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부벼

고며 말했다.

그와 배를 같이해서 순덕이가 은컵을 앞가슴에 받쳐들고 나타났다.

「엄마 이번엔 은컵이야.」

은컵을 쑥 내밀며 불만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입을 꼭 다물고 있던 맹두석씨는 그꼴을 지켜보다 말고 더 못참겠다는 듯,

「두 모녀가 잘논다.」

비감거림과 분노가 섞인 말투를 통명스럽게 내뿔으며 베통맞게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출전비 2만원에다 원고료가 2만원 그리고 수강료가 2만원 도합 6만원에다 물라값으로 1만원을 주었겠다. 아니 그럼 7만원인데..... 이 여편네가 간도 크지... 허긴 은값도 비싸니 그렇게야 들겠지...아하 그래서 금은방 주인을 대회장으로 했구나...)

손가락 계산을 하며 대회장을 뒤로 한채 터벅 터벅 걸어가는 맹두석씨의 어깨는 상당히 처져 있었다. 그러나 좀전 보다는 표정이 많이 누그러지고 있었다.

「여보 같이가요.」

어느새 등뒤에 바짝 따라 붙은 마누라가 화해하는 말투를 건네왔다.

「.....」

그는 그저 씨익 웃으며 못이기는 체 겐 걸음 늦추며

「똥은 생각해보니 그만한 돈이 들겠더군.」

「인제 아시는 구려.」

얼마쯤 집을 향해 걸다보니 도로변에 금은방 앞을 지나치게 됐다. 그것도 바로 대회장을 맡았던 한공달씨가 경영하는 곳이었다.

맹두석씨는 갑자기 순덕이가 들고가던 은컵을 나눠쳐두 빼앗더니 그 금은방으로 쏙살같이 들어 들어갔다.

「수고 하십니다. 저 이거 얼마나 되나 감정좀 합시다.」

「해해 손님두 그거야 어더 값이 따로 있나요」

「암 그렇겠지 금은이야 상부 지시대로 시세가 있을테니...」

「?! ! 그게 아니구 그건 명예에 관계된 건데...」

「명예라니? 무슨 놈의 명예요?」

「손님두 농담이 심하십니다. 오늘 대회에서 자녀분이 상을 탔나본데 잘 간직하셔야죠.」

「글쎄 만약에 이걸 은값으로 쳐서 판다면 얼마나 되겠소?」

「은값이 어딴습니까. 원 손님두...」

「은값이 없더니? 적어도 닷냥은 되겠는데...」

「그야 순 은이면 그렇지만 그거야 도둑한거니 값이 없죠.」

「여보슈! 이게 바로 당신네 주인이 준거요. 그런데 가짜란 말요?」

「허허... 손님두. 기뻐서 약주 한잔 하셨나본데 일찍 집에 들어가십시오.」

「약주? 나 아무 것도 안먹었요.」

이때 마누라가 문을 밀치며 들어섰다.

탁무가대로 퍼들고 있는 맹두석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맹두석씨는 썩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각해 봤지만 자신이 무엇에 홀린것만 같았다.

어쨌거나 마누라 손에 이끌리다 싶이집에 오니 동네 사람 대여섯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순덕이가 상을 탔네. 어휴 저 은첩 줘봐!」

그네들은 맹두석씨의 기분쯤 알바 없다는 듯이 우루루 달려들며 제각기 칭찬을 하고 있었다

「순덕아빠. 오늘은 그냥 안돼요. 한턱 단단히 내야지.」

「.....」

시무룩하게 맹갑먹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가는 맹두석씨였다.

그 꼴을 지켜보던 동네사람들이 의욕에 찬 눈을 하며 잠시 분위기에 젖더니,

「순덕엄마 왜 그래요?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수?」

「누가 안대요. 괜히 저러니... 나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순덕이는 봉당 한켠에 주그리고 앉아서 멍진 먹은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때.

방문이 확쩍 열리며 맹두석씨가 뛰어나왔다. 그의 품안엔 그동안 순덕이가 타왔던 은첩과 트로피가 수북히 안겨 있었다.

「동네분들 내 말씀 들어 보쇼. 이게 순덕이가 잘해서 받은건 줄 아슈? 천만에 이게 다 돈 지

랄이요 돈지랄. 이거 하나에 7만원씩 돈주고 산 겁니다. 돈주고... 순덕이가 잘해서 상을 탔다면 야 내 얼마든지 한턱안이라 두턱도 사겠수다.」

말을 마치고가 무섭게 안고 있던 상품들을 뺏다 마당으로 집어 던지며 맹두석씨는 집을 뛰쳐나갔다.

다만 그의 머리속엔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고 애어라지 어린시절 노트장을 타기 위해 기를 쓰고 운동장을 뒹박질 쳤던 어스름때한 기억이 빠르게 떠오를 뿐이었다. 끝

### 작가 노트

우리는 속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상당히 분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크던 작던간에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 가면서 엄밀히 따져보면 조금이라도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봐야겠다. 해서 나는 “솔직하게 속임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적어도 내 경우 나를 발가벗긴 채, 솔직하게 속이며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의 돌과 같이 둥글게 살지 못하고 채석장에서 갓 깨어낸 모난돌처럼 껍질껍질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문학이 그리고 소설이 인간 내면의 탐색 행위로 그 진실을 이끌어내는 행위일때 이것 역시 솔직한 속임없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소설이 거짓말(하구성)을 진짜(진실성)로 믿게끔 써야 하는 것도 소설기법에 있어 하나의 충실로 믿기 때문이다.

어쨌건 나는 이 작품을 쓰면서 마음이 아왔다.

세상사는 법에 익숙한, 약아빠진 사람들로 부터 교의였던 아니었던 맹두석과 같이 답답하고 고지식내지는 무식한 사람이 당하는 결과는 흡사 내가 늘상 당하는 일만 같았다. 어찌 나뿐이랴. 조금은 딱지가(?) 덜 떨어지다보면 우리네는 항상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펼쳐오는 것일...

끝으로 첨언한다면 작품중 응변대회는 실제 응변대회와는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다만 작품 구상상 인용했음을 덧붙이며 이제 나는 또 다른 작품 구상이라는 미명하에 마누라의 눈치를 보며 맹두석씨처럼 슬금슬금 여행가방이나 챙겨야 겠다.

## 제33기 지도자 교육

### 98명의 사범 배출!

영예의 1위는 이현태사범, 2위 박원식 사범, 3위 최석규 사범이!

제33기 지도자 교육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열흘간 국기원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시험회소속 70명, 국방부소속 12명 등 총 113명이 참가하여 태권도 사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능력과 일반교양은 물론 정확한 실기능력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대부분 20대의 4단인 수강생들은 신록으로 휩싸인 산정의 국기원에서 사범의 소양을 쌓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피우진, 서춘희 두 아가씨들은 사범교육의 청강생으로 참여하여 못 남자 사범후보생들의 홍일점 구실을 톡톡히 했다.

이번의 교육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평균 80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필기시험에 비하여 대부분 60점에 머물른 실기시험 결과를 들 수 있겠다. 이것은 지도자교육의 수강생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정도를 지니고 있으나 실기능력은 겨우 평균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33기 수강생들 중 최고득점자는 경기도 협회소속 이현태사범으로 230점 만점에 203.9를 「마크」했다. 이어서 2위 박원식사범은 202.42점을, 3위 최석규사범은 199.2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다음은 33기 지도자교육을 끝내고 실기 및 필기시험에 합격한 98명의 사범명단이다.

이들이 태권도 일선에서 우수한 사범으로 활약하르르써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 <33기 사범 명단>

| 성명  | 생년월일       | 현주소            |
|-----|------------|----------------|
| 오대영 | 57. 10. 5  | 충북 청주 복문2가19   |
| 백강현 | 57. 2. 4   | 부산 동래 연산5동707  |
| 김형동 | 39. 6. 25  | 경기 김포 양촌 마송104 |
| 김무부 | 40. 12. 25 | 대구 수성 상동608    |

| 성명  | 생년월일       | 현주소             |
|-----|------------|-----------------|
| 서현섭 | 43. 4. 17  | 서울 영등포 신철6동     |
| 박철원 | 46. 4. 18  | 전남 순천 석현동95     |
| 최석규 | 56. 7. 5   | 전남 담양 대전        |
| 김화경 | 44. 1. 2   | 강원 원주 학성1동      |
| 정영배 | 53. 1. 29  | 강원 횡성 잠진 삼거리1반  |
| 권순만 | 59. 1. 19  | 서울 마포 신수250     |
| 정구연 | 59. 4. 15  | 서울 서대문 홍은1동     |
| 김연철 | 58. 8. 27  | 서울 강서구 신정4동398  |
| 송용기 | 52. 11. 28 | 서울 관악구 봉천8동     |
| 정택희 | 48. 1. 13  | 서울 관악구 봉천8동     |
| 이기익 | 51. 12. 1  | 서울 강서구 목동       |
| 이덕희 | 57. 1. 20  | 서울 동대문 이문2동264  |
| 이덕성 | 52. 6. 3   | 서울 용산구 한강로40    |
| 오준식 | 57. 12. 6  | 서울 마포구 궁동36     |
| 성덕영 | 50. 10. 5  | 서울 강서구 신정3동449  |
| 김기승 | 57. 1. 27  | 서울 도봉구 수유240    |
| 장방현 | 55. 3. 13  | 충남 청산 정산 서정리    |
| 김일수 | 50. 1. 26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
| 최혁  | 55. 9. 28  | 경기 평택시 평명동158   |
| 이주용 | 57. 7. 24  | 서울 성북 정동4동      |
| 김영우 | 56. 9. 28  | 경기 용인군 기항 장래    |
| 나덕만 | 52. 11. 23 | 서울 중구 장충동2가     |
| 유해춘 | 58. 8. 18  |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
| 김동석 | 58. 3. 12  | 충북 충주 연수759     |
| 이규인 | 58. 1. 22  | 충북 충주 역전동 현성주택  |
| 이연호 | 58. 3. 16  | 서울 종로3가97       |
| 안원학 | 56. 1. 29  | 인천 북구 부평235     |
| 이규홍 | 55. 4. 27  | 인천 북구 부평4동      |
| 이상준 | 58. 1. 1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
| 이상증 | 46. 5. 9   | 경남 마산 회원2동317   |
| 이백운 | 52. 10. 1  | 서울 은평 역촌79      |
| 임승길 | 56. 2. 18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457  |
| 차승용 | 45. 3. 24  | 서울 동대문 장안2동     |
| 양희종 | 58. 4. 14  | 서울 동대문 면목4동370  |
| 윤태화 | 57. 5. 20  | 서울 성북 상월곡동 71   |
| 송충부 | 43. 9. 9   | 충북 충주 봉방1-25    |
| 김기륜 | 47. 1. 2   | 충북 충주시 성남동 6-11 |
| 권오현 | 49. 1. 14  | 충북 충주 봉방동15     |
| 천용봉 | 52. 9. 6   | 서울 관악구 신림4동475  |
| 김성규 | 57. 1. 12  | 서울 영등포 대림2동     |

| 성명  | 생년월일       | 현주소            |
|-----|------------|----------------|
| 송방영 | 57. 1. 14  | 서울 구로구 구로3동788 |
| 오기성 | 56. 12. 15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
| 장태윤 | 56. 11. 8  | 충남 공주 반포 온천2리  |
| 정찬렬 | 55. 1. 11  | 안양시 안양6 463    |
| 정용수 | 58. 12. 12 | 서울 은평구 역촌동     |
| 김용석 | 52. 12. 8  | 서울 중구 신당동40    |
| 조경복 | 53. 1. 2   | 서울 동대문 상봉2동    |
| 최영천 | 58. 6. 8   | 서울 도봉구 도봉동     |
| 송승복 | 56. 7. 15  | 대구 중구 동인4가447  |
| 김평섭 | 57. 3. 11  | 경기 양주 장흥 부곡리   |
| 유수철 | 55. 12. 23 | 서울 동대문 제기1동    |
| 김창수 | 59. 8. 3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 김형일 | 56. 7. 28  | 서울 마포구 망원동454  |
| 유세종 | 58. 12. 25 | 서울 동대문 건록동217  |
| 박인도 | 58. 12. 7  | 서울 관악구 봉천8동    |
| 김창렬 | 52. 2. 22  | 서울 강서구 신월3동산59 |
| 김영희 | 57. 1. 18  | 서울 영등포 양평동4가   |
| 방문환 | 45. 8. 8   | 서울 강동구 성내      |
| 심재신 | 53. 2. 1   | 경기 부천 춘의168    |
| 조상귀 | 46. 9. 21  | 서울 성북구 종암동57   |
| 장수관 | 54. 9. 27  | 서울 용산구 애부 이촌동  |
| 장득용 | 49. 2. 16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
| 김동섭 | 49. 10. 12 | 서울 도봉구 상계3동79  |
| 김향태 | 56. 1. 5   | 인천 북구 부평동743   |
| 안병렬 | 53. 8. 20  | 서울 은평구 증산동195  |
| 김성천 | 49. 6. 1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 김승규 | 49. 7. 1   | 서울 구로구 고척동     |

| 성명  | 생년월일       | 현주소             |
|-----|------------|-----------------|
| 소병일 | 57. 9. 13  | 서울 동대문구 면목7동611 |
| 방문성 | 55. 2. 22  | 서울 관악구 신림8동     |
| 김두년 | 57. 7. 17  | 부산진구 양정3동367    |
| 송하수 | 56. 10. 27 | 부산진구 전포1동684    |
| 송원화 | 56. 3. 28  | 부산진구 전포1동307    |
| 이광휘 | 57. 5. 25  | 부산진구 망미동390     |
| 이기성 | 58. 12. 5  | 전남 광주시 풍향1동     |
| 이청구 | 55. 10. 1  | 경기 시흥 군포 산골1343 |
| 진재용 | 57. 3. 20  | 경남 진주 제동142     |
| 강병국 | 51. 12. 29 | 경북 안동 평화372     |
| 임동렬 | 58. 6. 15  | 경북 안동군 철리231    |
| 이웅찬 | 59. 8. 15  | 경기 안양 비산동       |
| 박영우 | 57. 6. 25  | 경기 연천 전곡 신담리    |
| 김홍수 | 56. 12. 10 | 경기 성남시 태평3동     |
| 김성수 | 57. 1. 14  | 전북 이리 갈산78      |
| 한성진 | 55. 11. 5  | 대전시 동구 가양동554   |
| 한성진 | 55. 11. 5  | 대전시 동구 성남1동     |
| 권형규 | 57. 2. 17  | 전남 구례군 평의면 파리   |
| 김용수 | 56. 5. 3   | 인천 중구 송학동       |
| 박원식 | 57. 10. 1  | 대구 동구 불로동443    |
| 이현태 | 57. 2. 6   | 경기 용인 수지 죽전리    |
| 이규홍 | 58. 4. 17  | 경기 수원 조원578     |
| 정창석 | 57. 11. 29 | 경기 안양 비산동180    |
| 배용훈 | 58. 9. 27  | 경남 마산 완월97      |
| 김용기 | 39. 4. 15  | 서울 강남구 논현동      |
| 심찬석 | 56. 5. 21  | 대구시 북구 산격3동     |
| 이규영 | 54. 5. 16  | 부산진구 전포3동378    |

하늘은 어디를 가나 푸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일주 여행을 할  
필요는 없다.

—피 테—



## 제104회 고단자 심사 합격자 명단

지난 3월 27일 제104회 고단자(5,6단)승단심사가 있었다. 이번 심사에는 5단에 39명 6단에 18명이 응시하여 33명의 5단과 14명의 6단이 윤리되었다. 점차로 고단 응시자들의 실기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번 심사에서는 이정훈, 김관중 두 5단 응시자가 품세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올렸으며 겨루기에서는 윤종욱, 박 원, 두 5단 응시자가 최고 득점을 획득했다. 한편 논문부문에서는 6단 응시자인 김중보 최병열 한상운 세사람이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심사의 특기사항은 최초의 태권도 5단을 윤리받은 여성이 탄생한 점이다. 김명순(27)양은 자그마한 몸매에 남장여걸로 유명한 여성 태권도사범이다. 그녀는 17년의 태권도수련이 헛되지 않았으며 남자 고단 응시자들과 절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목을 받았다. 승단하는 47명의 합격자들에게 축하드리며 태권도 발전에 유능한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다음은 합격자 명단이다.

### 5단 43명

| 성 명 | 생년월일     | 현 주 소            |
|-----|----------|------------------|
| 홍성무 | 53. 1. 8 | 경기 부천 원미 94-4    |
| 윤종욱 | 53.10.30 | 대구 동구 신암 4구 573  |
| 이계승 | 52. 8. 5 | 충남 대천 중구 대흥 2동   |
| 한상운 | 48.12.24 | 경북 울진 명해 후포리 406 |
| 서종범 | 51.12. 5 | 부산진구 부암 15       |
| 김명순 | 54. 1.17 | 서울 도봉 미아 6동 651  |
| 고창원 | 49. 7.21 | 전북 고창군 고창 읍내리    |
| 배희동 | 49. 4. 6 | 서울 서대문 홍제 174    |
| 조성찬 | 54. 7.17 | 서울 관악 봉천 7동 178  |
| 서철호 | 55. 1. 8 | 서울 성동 금호 2 880   |
| 민병인 | 55. 2.28 | 서울 강서 신정 144     |
| 김완선 | 54.12.18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
| 박원서 | 51. 4.14 | 서울 도봉구 월계동 21-23 |
| 이상중 | 46. 5. 9 | 경남 마산 회원동 317    |
| 강대인 | 54. 3.15 | 서울 성동 용답         |
| 고영근 | 53. 3. 9 | 서울 은평구 수색 205    |

| 성 명 | 생년월일     | 현 주 소             |
|-----|----------|-------------------|
| 임윤택 | 53. 1. 7 | 서울 관악 봉천 6 85-6   |
| 김인성 | 53. 8.17 | 전남 영광 신월          |
| 김동진 | 48. 7.23 | 서울 강동 자실 1동       |
| 차승용 | 45. 3.24 | 서울 동대문구 장안 시영아파트  |
| 김창렬 | 52. 2.22 | 서울 강서 신월 3동       |
| 노창수 | 59. 9.22 | 서울 도봉구 중계동 139    |
| 송후섭 | 52. 5.30 | 서울 도봉구 장위동 75     |
| 김명덕 | 51. 9.15 | 서울 도봉구 중계 66      |
| 최운수 | 52. 5.20 | 서울 도봉 월계 61-2     |
| 정필운 | 52. 7.25 | 서울 도봉 풍릉 567-5    |
| 이정훈 | 50. 4. 1 | 서울 용산 효창 57-02    |
| 이연규 | 53.11.14 | 서울 강서 동촌 322      |
| 김관중 | 53. 3.15 | 서울 강남 서초 786      |
| 황용웅 | 52. 3. 1 | 서울 중구 필동          |
| 이용재 | 54. 7.18 | 서울 은평구 우암 74-3    |
| 신양우 | 52. 7. 7 | 경기 성남 은행 723-21   |
| 타동식 | 54. 3.25 |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8-15 |

### 6단 14명

| 성 명 | 생년월일     | 현 주 소           |
|-----|----------|-----------------|
| 이현기 | 50. 3. 8 | 인천 남구 주안 298-9  |
| 김중보 | 49. 8. 1 | 인천 남구 동춘동 768-1 |
| 유승열 | 46. 2.10 | 서울 성북 석관 248-24 |
| 최동열 | 47. 4.29 | 전북 덕진동 1가 1270  |
| 이병하 | 49. 1. 7 | 전북 전주 정원동 3     |
| 유봉호 | 46. 3.21 | 충남 예산군 예산 324   |
| 김공남 | 47.12.25 | 전북 전주 효자동 1 215 |
| 김진목 | 47. 6.15 | 경북 상주군 상주읍 병천동  |
| 김동협 | 36. 3.18 | 충북 충주 정원동 3     |
| 김호주 | 47. 9.27 | 서울 마포 신수 436    |
| 고홍식 | 47.11.14 | 경기 동두천 평암동      |
| 양주호 | 48. 8.19 | 서울 동작 상도 1동 443 |
| 최병열 | 47.12.20 | 서울 도봉 쌍문 2동 137 |
| 한상운 | 47. 4. 1 | 인천 동구 송현 1동 100 |

## 심 사 규 정

<1982년 4월 8 일 개정>

### 제 1 조 목 적

세계태권도연맹산하 각회원국협회의 소속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회원의 통일된 정신과 기술의 배양을 기하며 평준화된 공인품 및 단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권 리

본원은 세계태권도연맹산하 각회원국협회의 심사권(심사집행승인권, 심사집행감독권, 심사집행권, 품증, 단증발행권)을 통할행사하는 최고집행기관이다.

### 제 3 조 의 무

세계태권도연맹산하 각회원국협회는 소속회원을 본원이 실시하는 심사에 응심시킬 의무가 있다.

### 제 4 조 사 업

본원은 제 1, 2,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대회를 실시한다.

#### 1. 종합심사대회

세계태권도연맹산하 각회원국협회의 응심자를 특정한 장소에 집결시켜 종합심사를 집행한다.

#### 2. 국가단위심사대회

당해국회원의 응심자의 심사를 집행한다.

#### 3. 특별심사

본원에서 발행한 단증을 소지치 않은 태권도유단자 및 승단심사대회에 응심할수 없는 수련자를 위하여 특별심사제도를 둘 수 있다.

단,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4. 본원은 제 4 조 1, 2항에 대하여 품 및 유단자(4단 이하)의 심사집행권을 필요에 따라 원장의 재가를 득하여 위임할수 있다.

5. 본원은 세계태권도연맹산하 각회원국협회

를 총망라하여 고단자(5단이상)의 심사에 대하여 직접관할집행한다.

6. 세계태권도연맹산하 각회원국협회에 가맹된 각급연맹(국민교연맹, 중고연맹, 대학연맹, 여성연맹, 기타연맹)에 대하여는 세계태권도연맹규약 제18조 3항에 의거 심사집행권을 위임할수 없다.

7. 본원은 제 2 조에 의거 제 4 조 1, 2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발의 감독위원을 직접 파견할 수 있다.

단,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제 5 조 구 성

본원은 심사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의 별도기구를 두며 각위원은 태권도계의 지도급인사로서 덕망과 식견이 높은 자로 구성한다.

#### 1. 보통심사위원

지역심사대회를 판장하며 실기심사를 집행한다.

(지역이라함은 각국의 산하협회인 시도·주·현·성 등을 말한다.)

#### 2. 특별심사위원

세계규모 및 전국규모심사대회를 판장하며 실기심사와 교양심사 및 특기심사를 집행한다.

### 제 6 조 응심자의 자격

1. 세계태권도연맹산하 각회원국협회에 단체등록을 필한 태권도장에서 수련한 자로서 소속장 또는 사범법이 추천한 자.

2. 응심자는 본원 및 당해국협회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응심자는 국기원에서 공인한 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 7 조 심사시행승인요청

1. 세계태권도연맹산하 각회원국협회가 심사 시행을 요청할때는 30일 이내에 본원에 심사 계획을 통보하여 심사집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계태권도연맹산하 각회원국협회는 심사 집행종료후 10일 이내에 본원에 심사서류(원서 및 채점표) 및 심사비를 첨부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 8 조 승품, 승단년한 및 연령구분

| 품 · 단 별 | 승 품 · 승 단<br>년 한 | 승품 · 승단연령구분   |
|---------|------------------|---------------|
| 1품      |                  | 만 6세이상 15세 미만 |
| 1품~2품   | 1년 6개월           | "             |
| 2품~3품   | 2 년              | "             |
| 1단      |                  | 만 15세이상       |
| 1단~2단   | 1년 6개월           | 만 16세 6개월 이상  |
| 2단~3단   | 2년 6개월           | 만 19세이상       |
| 3단~4단   | 3 년              | 만 23세이상       |
| 4단~5단   | 4 년              | 만 27세이상       |
| 5단~6단   | 5 년              | 만 32세이상       |
| 6단~7단   | 6 년              | 만 40세이상       |
| 7단~8단   | 7 년              | 만 47세이상       |
| 8단~9단   | 8 년              | 만 55세이상       |
| 9단~10단  |                  |               |

모든 응심자는 승품, 승단년한과 연령이 공히 경과하여야 한다.

#### 제 9 조 응심구분

1. 승품심사
2. 승단심사
3. 기타심사(명예단등)

#### 제10조 심사시행

모든 심사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다.

1. 품 및 3단이하의 응심자는 실기심사로 한다.
2. 4단이상의 응심자는 실기심사와 교양심사로 한다.
3. 4단이상의 응심자에 대하여는 연구발표를 권장과목으로 할수 있다.

#### 제11조 심사과목

1. 실기심사
  - 품 세
  - 겨루기
  - 북 기

#### 2. 교양심사

필 답  
는 문

#### 제12조 품 · 단 응심별 실기과목

| 응심품 · 단 | 품              | 세           |
|---------|----------------|-------------|
| 1단 · 1품 | 태극 1장~8장       | 2지정         |
| 2단 · 2품 | 태극에서 1지정       | 고려          |
| 3단 · 3품 | 태극 고려중 1지정     | 금강          |
| 4 단     | 태극 금강중 1지정     | 태백          |
| 5 단     | 태극, 고려 태백중 1지정 | 십진          |
| 6 단     | 태극, 고려 십진중 1지정 | 지태, 천권중 1선백 |
| 7 단     | 태극, 고려 천권중 1지정 | 한수, 일여중 1선백 |

8단 이상은 기술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함.

#### 제13조 심사채점

채점은 다음. 요령으로 심사집행 위원별 접수제로 한다.

단, 채점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1. 품 세

- 1) 시선(기혼, 기합, 주시)
- 2) 각도(몸통, 수족의 간격)
- 3) 완속(힘의 강약, 신축성)
- 4) 행률(진행선)
- 5) 품위(태도, 예의, 침착성, 복장)

2. 겨루기

- 1) 시선(기혼, 기합, 주시)
- 2) 기의 다양화(중심이동,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연속성)
- 3) 품위(태도, 예의, 복장, 여유, 침착성)

3. 특 기

- 1) 타 령
- 2) 특수수기
- 3) 특수촉기

4. 교 양

- 1) 답필교사
- 2) 논문교사

제14조 심 사 비

심사비 및 제반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처 리

심사의 사정된 결과를 기술심의회를 거쳐 본원 사무국에 이관하여 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국기원장 명의의 품증, 단증을 발행한다.

제16조 특 전

1. 태권도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회인사로서 공적사항에 따라 명예단을 수여한다.
2. 태권도고단자로서 공로가 지대한 자가 순직하였을 때에는 1계단을 추서한다.
3. 태권도유품자 및 유단자로서 경기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승품 승단연월일을 단축할 수 있다.
4. 태권도유단자로서 공로 및 지도실적, 연구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승단연월일을 단축할 수 있다.
5. 특전에 대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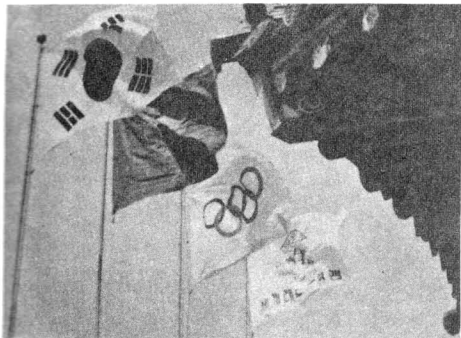
〈한마디의 위트〉

미국인은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가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당신의 미국통치방식이 싫다」고 소리칠 수 있다.

물론 소련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브레즈네프의 집무실로 찾아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도대체 레이건의 미국통치방식이 싫단 말이오」라고

〈레이건 美대통령의母校유래카대학에서의 연설에서〉





# Visitors

## 손님들

국기원 팔각정 옆에는 태극기와 오륜기가 계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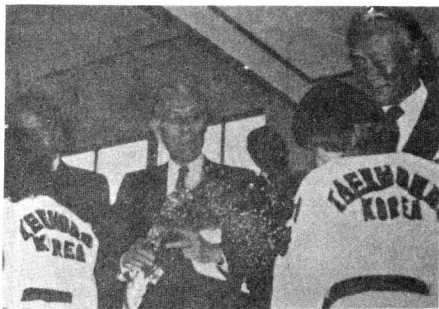
Scene of Kukkiwon, the World Tae Kwon Do HQ.



국기원을 방문한 사마란치 IOC 위원장에게 김희장이 기념패를 증정.  
Dr. Kim WTF, Presented a Commemorial plate to Hon. J.A. Samaranch President, IOC



라이케호프 IOC위원(푸에르토 리코)  
Hon. German Rieckehoff, IOC Member(Ruerto Rico)



기요가와와 IOC 부위원장(일본)  
Hon. M. Kiyokawa, vice president of the IOC (Japan)

넬 · 소렌슨 IOC 위원 부  
처(덴마크)

Hon. & Mrs. Niel Holst  
Sorensen, IOC Member  
(Den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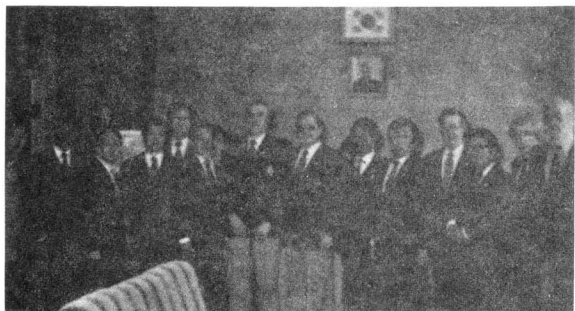
게마엘 IOC위원 일행(레바논)  
Hon. Cheik Gabriel Gemayel,  
IOC Member(Rebanon)



한일 친선협회 「심곡용사」 중의원 의원  
深谷隆司(日本, 衆議院 議員)



스리랑카 NOC 위원장 란지스 위라세나씨.  
Mr. Ranjith Weerasena, President of Sri  
Lanka, NOC



세계 연맹 실행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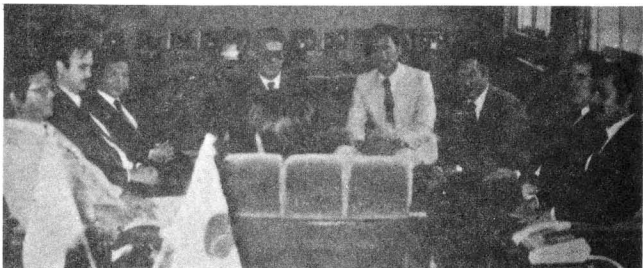
Members of WTF Executive Council



바우드리 타히티 무도협회장  
Mr. Benard Baudry, President of Tahiti Martial Art Association



라이베리아 태권도 협회장 바투준장 일행  
B/General Gbatu, President of Liberia TKD Association.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의 페레즈 시장 일행  
Hon. Ricardo Chavez Perez, Mayor of Guadalajara, Mexico

# 82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 Tournament for the Selection of 82 National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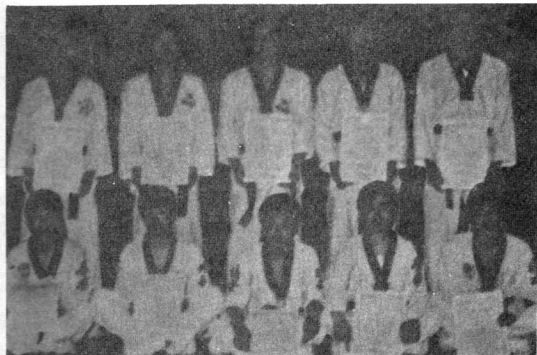


개 회 식  
Opening Ceremony



헤비급 우승자 장승화(해군)선  
수

Mr. Chang Seung Hwa, Heavy  
Weight Champion



대표선수 1진  
1st place Winner



대표선수 2진  
2nd place Winner



# 제11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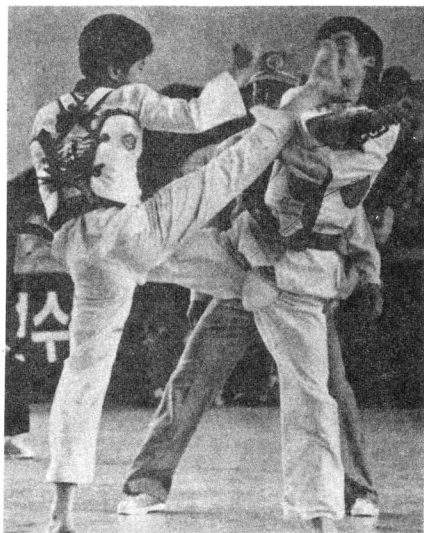
The 11th National Children's Athletic Games TKD  
Tournament

열군 강타!

Scene of Competition

시 상 식

Awarding Ceremony



조상호 대한체육회장이 경기장을 방문, 격려했다.

Hon. Sang Ho Cho, President of K.A.S.A.  
encouraged participants



김운용 회장이 참가선수들에게 선전을 당부.

Dr. Kim delivers an address to the participants

# 제1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 17th TKD Tournaments for the Presidential Flag

윤 오남 선수의 대표선서

The Oath by Champion, Mr. Oh Nam Yoon



김창식 전남지사가 격려사를  
했다.

Encourage addressed by Mr.  
Chang Shik Kim, Provincial  
Governor, Chola Nam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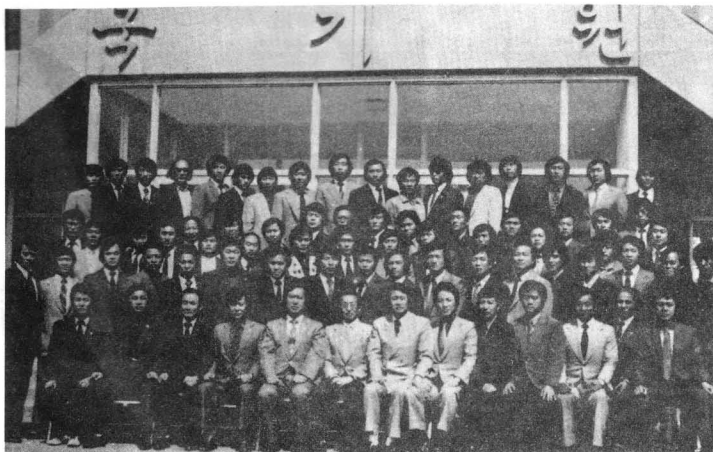


대회가 벌어진 광주 실내  
체육관

Kwang Ju Gym.



### I · II 급 심판 강습 Refree Sem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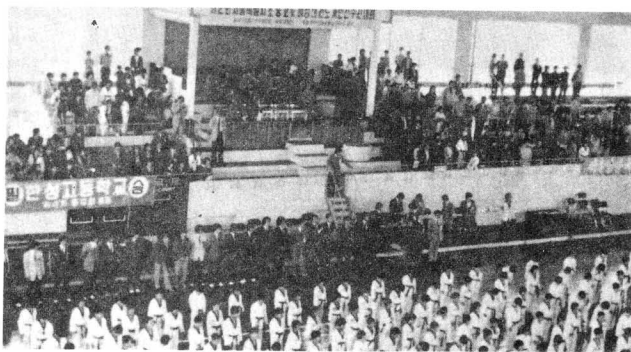
참가자 일동  
Attend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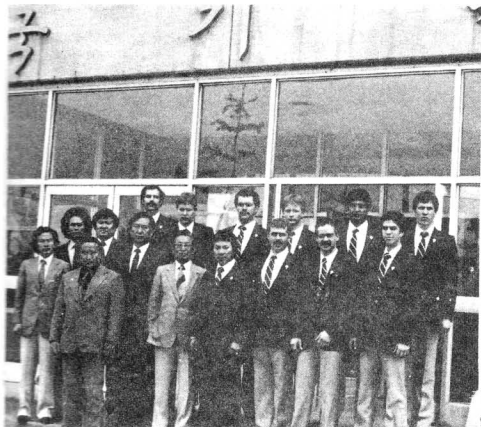
82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Nomination, 82 Expert Committee Members KTA

이런일  
저런일

Tit  
Bit



제 2 회 서울시 초·중·고 및 여성대회  
The 2nd TKD Tournament of Seoul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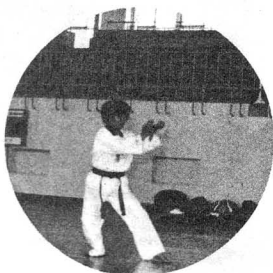
캐나다에서 이준재 사범과 함께 전지 혼  
련차 종주국을 찾은 벽안의 수련생들.

9 Trainees from Canada Visit Kukkiwon

# 이런일 저런일 Tit 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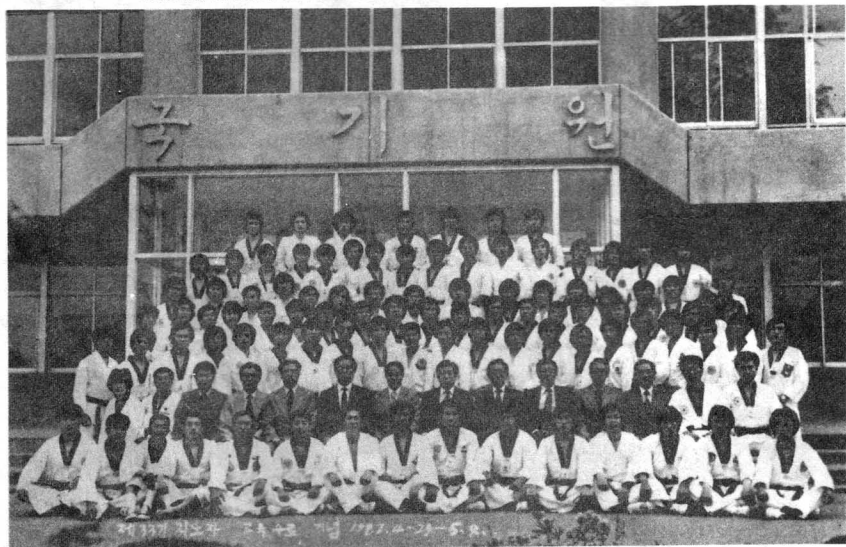


82년도 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원 위촉장 수여식  
Nomination, 82 Technical Committee Members Kukkiwon



김명순양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5단으로 승단했다.  
For the female, Miss. M.S. Kim received the 5th high Dan first time in the world

## 제33기 태권도 지도자 교육 The 33th Instructor Refresher Training



수강생 일동  
Attendees